

우리의 거침없는
진리를 찾아서

답사하기에 앞서

부석사

선암사

병산서원

하회마을

선교장

소쇄원

우리의 건축은

우리의 건축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 주위의 자연을 닮아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배경이 되는 자연의 선과 최대한 닮도록 디자인하거나 자연 속에서 채취한 재료를 이용하여 주춧돌, 기둥, 보, 서까래, 댓돌 등의 건축부가 만들어져 있다.

건축물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하는 초가와 기와의 지붕선은 배경이 되는 산의 형상을 많이 닮아 건축물의 배경이 되는 산의 모습이 일부 잘려나가거나 중첩되어도 어색하지 않다. 또한 주춧돌은 궁궐을 제외하고는 자연에서 채취한 막돌을 그대로 쓰거나 깎은 돌을 씌우므로써 땅위에서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땅 속에 있는 바위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여 주춧돌과 기둥이 만나는 부위의 선이 나무와 땅이 만나는 불규칙한 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게 한다. 한국인의 이런 미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건축물은 환경의 일부가 되어 건축에 적용된 철학이 다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와 심리에 영향을 주어 생활양식과 행동양식까지 건축물을 닮아가게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옛 모습과 전통을 공간 속에 간직한 세월을 새겨놓은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는 건축과 인간의 고리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된다. 여기에서는 불국토를 형상화한 수도공간으로서의 사찰과 사상의 질서가 담겨있는 서원, 생활의 지혜와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살림집,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정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건축의 공간구성의 미와 환경과의

조화, 나아가 건축물의 숨겨진 표정까지 알고 느껴본다. 인공물이면서 자연을 닮은 그래서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옛 건축이다.

숨어 있는 미 찾기

건축 감상은 건축물 하나 하나와 이 건축물들이 모여 군을 이루었을 때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단독 건축물을 감상할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적 의미와 구조적 의미에 관한 학술적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감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건축의 표정을 풍부하게 해주고 완성도를 높여주는 장식들(처마 위의 잡상들, 단청, 문양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전체를 감상할 때에는 건물배치에 의한 공간의 변화와 자연과 인공의 조화뿐만 아니라 공간을 만들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담장, 석축, 기단, 계단 등에 대해서도 증점적으로 눈여겨 보아야 한다.

건축 감상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을 보고 건축사의 흐름 속에서 학술적 가치를 찾는 것 못지 않게 건축물 속에 숨겨진 다양한 표정과 의미, 즉 숨겨진 미를 찾아내어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원건축의 정점 부석사에 대하여

자연미를 지닌 사원건축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석사는 676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이곳에서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닦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면서 화엄종찰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래 1,300년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찰이다. 부석사에는 대석단과 함께 아름다운 석물들이 많으며 부석사의 여러 건물 가운데 무량수전과 조사당은 고려시대의 건축물로 현존하는 목조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화엄사상에 근거하여 가람을 배치한 부석사는 화엄경을 현실로 펼쳐 보이고 있는 가람이다. 또한 석축은 부석사에서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돌을 생긴대로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쌓아 만들면서 석축의 높이에 의해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부석사는 일주문, 천왕문, 범종루, 안양루, 그리고 가장 높은 영역에는 주불인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수전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껴 앉힘으로써 축선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찰이다. 부석사는 자연을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 준다.

눈여겨 보기

■ **가람배치** : 봉황산 중턱에 자리잡은 부석사는 산자락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일주문, 천왕문, 안양문,

무량수전, 조사당으로 이어지는 산지형 사찰배치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량수전에서 바라다보는 소백산맥이 장쾌하다.

■ **당간지주** : 일주문을 지나 사과나무 밭길 왼쪽에 있는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좁아져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 **대석단** : 부석사는 천왕문에서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아홉 단의 석축을 올라야 하는데 이 석축은 극락세계를 이루는 구름 만다라를 상징한 것이라 하며 크고 작은 돌들이 결합된 부석사의 석축은 자연미가 뛰어나면서도 정교하다.

■ **범종루** : 범종루 밑에서 범종루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 바라보는 안양문과 무량수전은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범종루의 나무기둥은 뒤틀린 나무생김 그대로 솜으로써 말발굽 모양 등 기둥마다 각기 다른 표정을 자아낸다.

■ **안양문** : 무량수전과 함께 부석사의 중심영역을 이루는 안양문은 경사가 급한 자리에 누각과 문의 기능을 겸하여 지은 건축물로 세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안양루에 올라 내려다보는 소백산의 연봉들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 **무량수전** : 무량수전은 안양문과 지붕이 겹쳐졌을 때 가장 아름답다. 나무와 흙만으로 지어진 무량수전의 현관은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머무를 때 쓴 글씨이며 전각 안에는 아미타여래를 모시고 있다. 아미타여래는 ‘무량수불’이라고도 하여 전각의 이름이 ‘무량수전’이 되었다. 부석사는 고려 중기의 건축물로 현존하는 북조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이다. 또한 **베흘림** 기둥과 간결하면서도 공이 들어간 고려시대 장인정신을 맛볼 수 있는 주심포집은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며 불교건축의 완숙한 경지를 보여 주고 있어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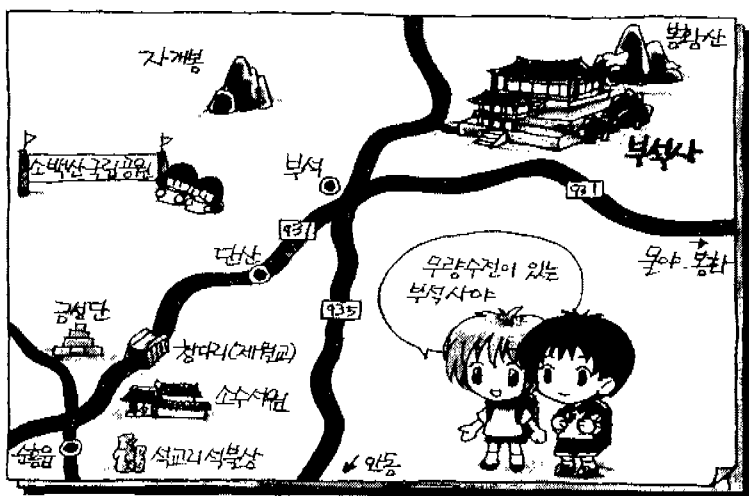
- **아미타여래좌상** : 무량수전 안 왼쪽 끝에 치우쳐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흙을 빚어 만든 소조여래상으로 고려시대 소조불로는 가장 크다.
- **석등** : 무량수전 앞마당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전형적인 팔각석등은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석등으로 국보 제17호 이다.
- **삼층석탑** : 무량수전에서 조사당으로 가는 언덕에 있는 3층 석가탑은 전형적인 신라석탑으로 보물 제249호이다.
- **조사당** : 국보 제19호인 조사당은 의상대사와 역대 조사들을 기리기 위한 전각으로 고려시대에 지은 작고 평범한 맞배지붕집이다. 그리고 동쪽 창 밑의 나무 한 그루는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은 선비화라고 전한다.
- **선묘각과 부석** : 무량수전 동쪽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전각인 선묘각은 의상을 사모한 당나라 아가씨 선묘의 넋을 기려 근래에 세운 것이고, 무량수전 서쪽 뒤에 있는 부석은 의상대사가 지금의 부석사 자리에 터를 잡을 때 선묘낭자가 커다란 바위로 변하여 방해하는 무리들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바위이다.

느껴보기

- **돌계단 오르기** : 사찰에서 영역과 영역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되는 돌계단을 오르며 대부분의 돌계단이 난간 없이 가파른 이유(조심성과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생각해 보기
- **무량수전 앞에 서서** : 무량수전 앞으로 장대하게 펼쳐진 소백산맥을 바라보며 명쾌한 시야 느껴보기

■ **자연의 서정과 인공의 질서** : 풍요로운 자연과 빈틈없는 그러면서도 극히 자연스러운 인공의 질서 읽어내기

찾아가는 길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미리 알아보기

■ **사찰건축** : 사찰은 위치에 따라 평지에 건축물을 분산배치 한 평지형 사찰과 경사가 심해 석축을 쌓아 단을 형성하여 건축물을 배치한 산지형 사찰로 나뉘어 진다. 산지형 사찰은 수직공간 이동이 심하여 공간과 공간을 이어가며 느끼는 체험에서 얻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는데 경사지에 단을 만들기 위해 쌓는 석축은 그래서 사찰 건축의 시작이 되고 그런 만큼 심

혈을 기울여 많은 볼거리와 감동을 주는 곳이다. 부석사를 비롯하여 해인사, 송광사, 불국사, 화엄사 등이 산지형 사찰에 속한다.

■ **사찰의 축선** : 다른 전통 건축에 비해 동선이 긴 사찰은 신도들이 최종 목적지인 대웅전까지 자연스럽게 공간의 변화를 느끼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축선을 설정한다. 주요 건축물, 즉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누, 대웅전을 한 축선 상에 배치하고 배경이 되는 건축물은 축선 주변에 배치하여 영역을 한정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각 영역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대웅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건물수가 많을수록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건물수가 적은 경우는 틈 □자로 건물을 배치하여 입구에는 누를, 그 반대편에는 대웅전을 배치하고 직교하는 축선 상에는 요사채나 강당을 배치한다. 건물수가 많은 경우에는 영역을 크게 상·중·하로 나누고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금강문), 누에 이르기까지를 진입공간으로 한 축선 상에 두고, 누를 지나 너른 마당을 중심으로는 대웅전(대적광전), 나한전, 명부전, 강당, 요사채 등이 들어앉고, 가장 높거나 깊은 곳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군이나 중요한 석물을 얹혀 최종 예불지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범은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와 화엄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주심포** : 기둥 위에서부터 대들보 아래까지 짧은 부재를 짜맞추어 장식을 겸해 처마 하중을 받게 한 것을 공포라고 하는데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 주심포,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으면 다포계공포라 한다.

■ **배흘림기둥** : 기둥의 아래쪽 1/3쯤이 가장 볼록하게 배가 불리 보이게 한 기둥을 말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고 은(1992). 절을 찾아서. 서울: 책세상.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신영훈(1994). 절로 가는 마음. 서울: 책 만드는 집.
- ♣ 신영훈(1996). 사원건축. 서울: 대원사.
- ♣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이태원(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 청림출판.
- ♣ 정재훈(1995). 문화의 산길 들길. 서울: 화산문화.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서울: 돌베개.

가장 아름다운 절집 선암사에 대하여

조계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태고종의 총 본산인 선암사는 삼국시대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을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중창했다는 설과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중창은 11세기 말 고려 11대 왕 문종의 아들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였다고 한다. 한 세기 전 조선 후기 사원의 모습을 큰 변화없이 간직하고 사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찰인 선암사는 법적 주인은 조계종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태고종이며 재산관리인은 순천시장이라는 묘한 소유구조 덕분에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기존 건축질서를 허무는 불사가 행해지지 않아 한 세기 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어 여러 개의 단과 낮은 축대를 이용하여 20여 동의 전각을 밀도있게 배치한 선암사는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하고 간략한 건물들이 모여 이루어내는 변화있는 구성과 절 전체를 관통하며 지나가는 인공적인 계류, 요소 요소에 꾸며져 있는 연못들, 그 사이로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자생하는 녹색 차나무들로 인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경사지를 이용한 작은 화단들로 인해 봄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나라 최고의 사찰이다.

- **승선교** : 보물 제 400호로 지정되어 있는 승선교는 1698년 호암대사가 축조한 것으로 현존하는 무지개 다리 중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 **삼인당** : 긴 타원형의 못 가운데 둥근 섬이 있어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삼인당은 심오한 불교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 **야생차밭** : 삼인당에서 일주문으로 오르는 모퉁이에는 맛과 향이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야생차밭이 있다.
- **대웅전 영역** : 강당인 만세루와 마주보고 있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마당에 있는 동서삼층석탑과 설선당, 심검당이 있는 영역이다. 마당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설선당과 심검당은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심검당의 환기창에는 빈번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처방으로 물과 관련된 ‘水’자와 ‘海’자를 투각하여 장식하였다. 단아하면서도 정중한 느낌을 주는 대웅전은 1825년에 중창된 것으로 빛 바랜 단청이 고색창연하다.
- **원통전 영역** : 대웅전보다 한 단 높은 곳에 위치한 원통전 영역에는 불조전, 팔상전, 원통전, 장경각 등의 전각이 배치되어 있다. 불조전과 함께 앞쪽에 나란히 위치한 팔상전에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를 모시고 있는 전각으로 18세기 후반의 불화를 대표하는 화엄경변상도가 걸려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은 지붕모양이 J자형인 건물로 화려한 꽃창호와 창호 아래쪽 청판의 계수나무와 토끼 두 마리의 장식이 눈에 띈다.
- **응진전영역** : 불전인 응진전과 조사당인 진영당, 승방인 달마전 등 일곱 동의 건물로 구성된 응진전 영역은 그 자체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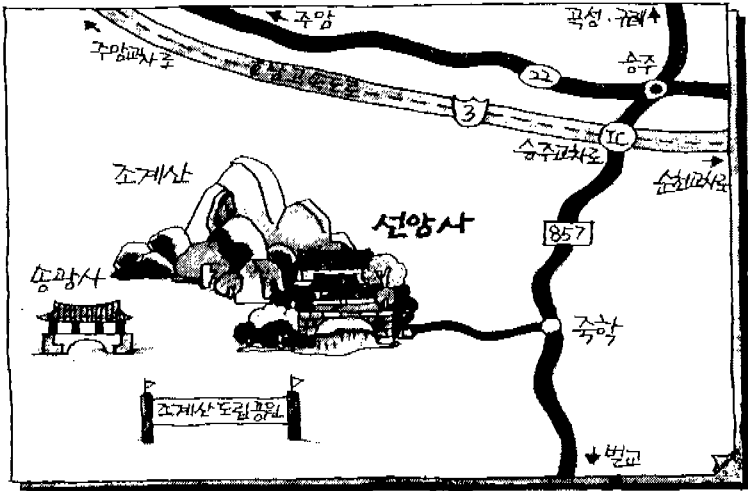
은 사찰을 이루고 있고 선원담계 담을 두르고 대문을 달아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셋문 뒤로 차밭이 연결되어 있어 시선을 넓혀 준다.

- **무우전영역** : 웅진전 영역 옆 가장 외진 곳에 한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무우전 영역은 ㄷ자형의 소박한 승방과 신라 말 도선국사가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철불좌상이 모셔져 있는 화려하고 날렵한 각황전이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느껴보기 !

- **풍치와 정취** :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깊은 풍취와 정취를 자아내는 선암사만의 소박한 아름다움 느끼보기

찾아가는 길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미리 알아보기

■ **선암사의 불교건축** :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 송광사와 선암사는 건축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은 송광사가 마당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가람배치를 한 반면 교종에 가까운 선암사는 고정된 형식을 거부하는 선불교적 영향을 받아 기교적이고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 토속적이고 자유분방한 가람구성을 보인다.

■ **선암사 중창설화** : 선암사라는 이름의 유래는 숙종 때 호암대사가 선암사를 중창할 때 기도를 드렸던 대장군봉의 배바위에서 유래한다. 중창불사 때 호암대사가 이 배바위에서 기도하다 효험이 없어 투신하자 하늘에서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코끼리를 탄 여인이 내려와 보자기로 호암대사를 받아 다시 배바위에 올려 놓으면서 어찌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하면서 사라지자 친견한 관세음보살을 조성하여 丁자각 형태의 원통전을 짓고 이를 봉안하였으며 선암사라는 이름도 이 때의 배바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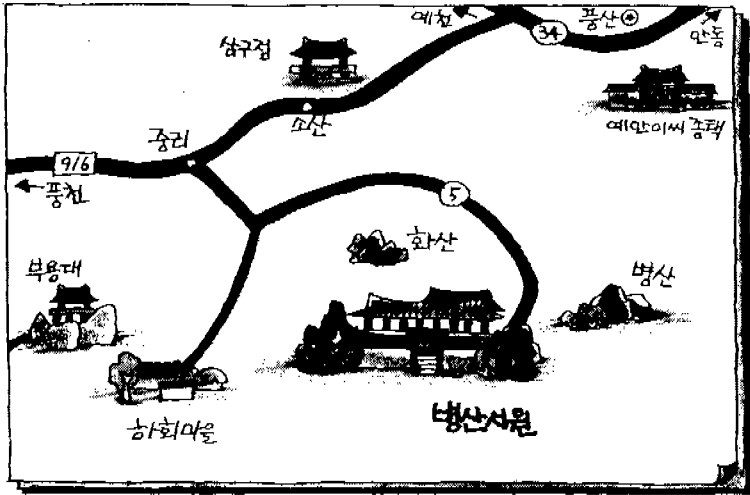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1. 서울: 돌베개.
- ♣ 김봉렬(1999). 삶과 삶의 공간. 서울: 이상건축.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원건축의 전형 병산서원에 대하여

유교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병산서원은 서에 류성룡과 그 아들 류진을 배향한 서원으로 ‘병산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은 것은 1863년(철종14년)이었으며, 서원이라는 사설교육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이후에 건립된 서원이라 배치나 구성이 서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병산서원 앞쪽에는 강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원의 기본 배치는 성균관 문묘나 고을의 향교들처럼 남북 일직선 상에 외삼문,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을 놓고, 강당 앞쪽으로는 좌우에 동재와 서재를 놓으며 강당 뒤쪽에 전사청과 장판각을 두었다. 그리고 외곽에는 이 모두를 감싸는 낮은 돌담을 두르고, 사당 공간에도 담을 돌려 출입을 엄히 통제하였다. 병산서원은 이 기본 배치를 충실히 살리면서 살짝 축을 비켜 사당을 뒤편으로 엄격하면서도 권위적이지 않은 뛰어난 공간 구성력으로 공간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병산서원의 건물들은 기거하는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곳곳에 담고 있으며 서원 마당 곳곳에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는 문과 담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건축을 완성시키고 있고 만대루를 중심으로 뛰어난 주변 풍광을 품으며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 별다른 조정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힘없는 공간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시선을 통해 자연을 가득 누리고 있는 서원이다.

- **복례문** : 복례문은 ‘극기복례’에서 따온 이름으로 솟을대문이
다. 이 앞에서 보면 입교당 뒷마당까지 시선이 연결된다.
- **만대루** : 병산서원의 아름다움은 만대루에 있다. 정면 7칸, 측
면 2칸으로 길게 이어진 누로 벽과 문, 창이 없어 시선이 사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만대루의 기둥들을 보면 목재
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씌으로써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
다. 강당으로 이용되었던 만대루에 앉아 있으면 휘돌아가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병산이 있어 바라보는 풍광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한다.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자연
을 차단하지 않는 우리 옛 건축의 심미안을 느낄 수 있다.
- **입교당** :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뜻을 지닌 강당으로 서원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이다. 가운데는 마루이고 양쪽에
온돌이 있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아담한 건물이다. 동쪽 방
은 원장이 기거하던 ‘명성재’이고 서쪽에 있는 방은 유생들이
기거하던 ‘경의재’이다. 입교당에 앉아서도 시선의 막힘이 없
어 만대루를 지나 앞의 절벽이 눈 앞에 와 닿는다.
- **동재와 서재** : 입교당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생들이 기거하
는 기숙사 건물로 강당을 향하고 있어 서원이 지녀야 할 엄
격성을 고려한 배치임을 알 수 있다. 동재의 주춧돌은 기둥에
비해 엄청 큰 주춧돌을 비껴놓음으로써 건축이 자연의 일부
처럼 보이게 하는 우리 옛 건축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 **존덕사** : 병산서원의 사당으로 존덕사 동쪽에는 제수를 마련
할 때 사용하는 전사청이 있고 서쪽에는 각종 서책과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이 있다. 전사청으로 통하는 문과 계단식으로
경사를 이루며 전개되는 담과 그 사이의 솟을 대문, 그 한 쪽
의 배롱나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미리 알아보기

- **서원의 건축양식** : 전형적인 유교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서원의 건축양식은 검소한 생활양식을 중시하였던 가치관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간결하며 건물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교육시설과 제향시설이 필수적인 서원은 대부분 뒤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는 돌이나 강을 바라보는 산기슭에 터를 잡아 자연의 원리를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건축의 구도를 잡는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2칸,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 일반적이었다. 서원은 산간이나 향촌에 온거하며 학업을 익히고자 하는 뜻으로 세웠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특별한 꾸

밈은 없고 주위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조형미를 중시한다. 서원건축의 공간 구성과 배치는 앞쪽에는 교육시설을, 뒤쪽에는 제향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건물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중심축을 두고 앞에서부터 정문,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 순으로 배치하고 강당 전면에는 좌우대칭으로 재실을 두었다. 그리고 제기고와 장판고 등은 관련 주건물 주변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서원의 건물구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원의 기능 또한 달라져 약간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교육시설이 중시되었으나 17세기 후반이후로는 제향시설이 중심이 되어 장판각이나 누각 등이 점차 모습을 감추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로 바뀌어 나갔다.

■ **류성룡** : 1542년에 태어난 류성룡은 25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영의정이 되어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의 수행하며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재상으로 학봉 김성일과 함께 퇴계 이황의 양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영남사람에서의 위치도 크다. 말년에는 북인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파직을 당한 뒤 향리에서 임진왜란 기록인 '징비록'과 '지행설' 등을 저술하다 1607년에 별세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지민(1989). 조선시대의 서원건축. 서울: 문화재관리국.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유홍준(199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최완기(1995). 한국의 서원. 서울: 대원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서울: 돌베개.

하회마을에 대하여

물은 산을 휘감아 안고 산은 물을 얼싸안은 곳에 터잡은 하회마을은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큰길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며 양반가옥의 전형을 이루는 기와집들이 많이 있고 이들 기와집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종가집에서 부리던 사람들이나 소작인들이 살던 살림집인 초가집도 함께 있어 1988년 민속마을로 지정되었다. 긴 타원 지형의 마을을 낙동강이 감싸 흘러 물이 돌아나가 하회(물동이동)라고 부르는 하회마을은 지형 자체가 배 모양이어서 마을에 돌을 쌓으면 배에 돌을 가득 싣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곳에서는 돌담을 쌓지 않고 판담을 쌓고 우물도 파지 않는다. 우물을 파면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회마을은 지형이 가운데가 볼록сут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집들이 남향으로 앉혀 있지 않고 길도 마을 중앙에 있는 삼신당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뻗어 있다. 그래서 길에서 대문이 보이지 않는 집이 많다. 하회마을은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고 양반가옥의 전형을 이루는 집들이 많아 보물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곳이 많다.

눈여겨 보기

■ **부용대** : 하회마을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마을의 전체 지형과 지세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마을에 들어가기 전

에 이곳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원지정사** : 마을 어귀에 있는 류성룡이 1576년에 지은 정자로 중요민속자료 제85호이다.

■ **변연정사** : 원지정사 서쪽에 위치한 강에서 가장 가까운 정자로 강 건너편 부용대를 바라볼 수 있고 경관이 가장 좋다. 중요민속자료 제86호이다.

■ **삼신당** : 마을 중앙에 있는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이다.

■ **양진당** : 조선전기 주택으로 하회 류씨 대종택이며 하회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정남향 집이다. 보물 제30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석봉 한호의 글씨로 ‘입암고택’이라 써어 있는 편액이 걸려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집 이고 안채는 전형적인 □자형 집으로 사랑채 바로 옆으로 난 중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 **충효당** : 양진당 길 건너편에 위치한 충효당은 류성룡 증가로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다. 향의 배치가 자유로운 다른 집들처럼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 다시 동쪽으로 꺾어야 대문이 나온다. 사랑채 건물인 충효당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왼쪽 2칸은 온돌, 가운데 2칸은 트인 마루로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충효당’ 현판은 조선 중기의 명필가인 미수 허목이 서애 류성룡이 충과 효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써 준 글씨다. 류성룡 시절에는 집이 작고 조촐했으나 확장 중수하여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안채는 □자형의 전형적인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건물은 붙어 있지만 후원 문을 통해 드나들게 되어 있다. 뒷마당에는 유물각인 영모각이 있어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 **북촌택** : 양진당과 더불어 하회 북촌을 대표하는 중요민속자료 제84호로 하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살림집이다. 양진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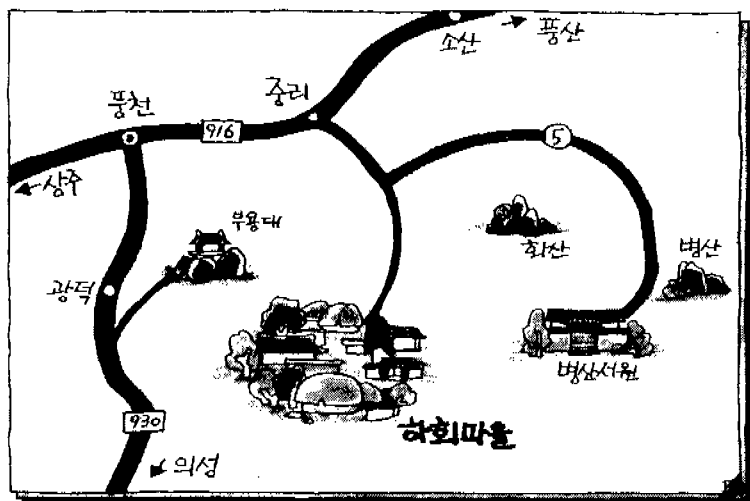
나 충효당과는 다르게 □자형 평면에 안채와 사랑채가 같이 있다. 본채와 틀어서 별채를 배치한 것이 특이하고 이런 외부 공간의 구성이 북촌택의 아름다움이다.

■ **남촌택** : 충효당과 함께 남촌을 대표하는 중요민속자료 제90호로 1954년 불에 타 지금은 문간채, 별당, 사당만 남아 있다.

느껴보기

■ **자연친화적 촌락형성** :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자연 속에서의 최상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심성과 미의식 느껴보기

찾아가는 길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촌면 하회리

미리 알아보기

■ **마을의 구성요소** : 마을은 야트막한 야산이나 평지에 자리잡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경주의 양동마을과 안동의 하회마을이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을 배경으로 평지에 촌락을 형성하였지만 나지막한 야산을 배경으로 촌락이 형성될 경우 구성에 이로운 점이 많다. 산을 뒤로하고 흐르는 물을 앞에 두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택할 경우 북서풍을 차단해 주고 집 안팎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며 시원한 조망이 앞에 펼쳐져 입면상 안정감을 주게 된다.

■ **판담** : 하회마을은 지형 자체가 배 모양이어서 마을에 돌을 쌓으면 배에 돌을 가득 싣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곳에서는 돌담 대신 흙담을 쌓는데 이 흙담을 ‘판담’이라 한다. 흙담은 널빤지로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진흙, 돌, 지푸라기, 석회 등을 넣어서 굳힌 다음 판장을 떼어내어 담을 만드는 것이다. 흙담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젖거나 쓸려가지 못하게 담에 기와지붕을 얹는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9). 삶과 삶의 공간. 서울: 이상건축.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유홍준(199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서울: 돌베개.

선교장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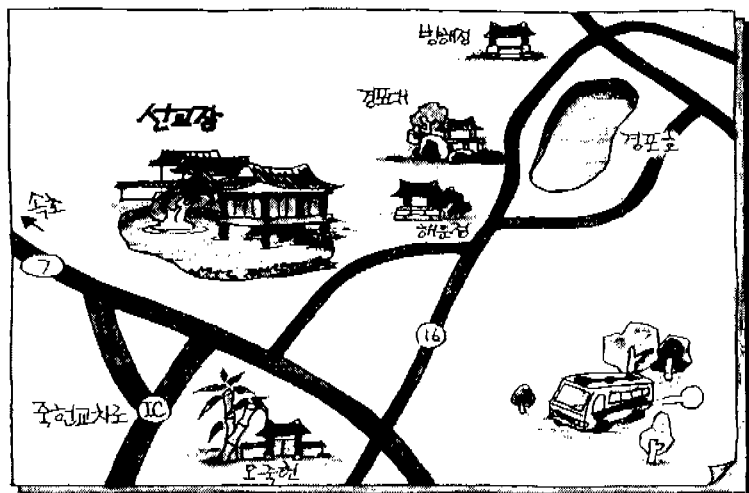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 저택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는 선교장은 공간 구성과 배치가 평이하지만 진입로에 있는 연못에 위치한 정자가 인상적이다. 선교장이란 이름은 경포호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때는 배를 타고 건너 다닌다하여 배다리마을(선교리)이라고 불린 데서 유래되었다. 선교장은 긴 행랑에 둘러싸여 있는 안채, 사랑채, 동별당, 가묘 등이 정연하게 남아있고 문밖에 정원까지 갖춘 완벽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민가주택은 대개 추운 지방은 폐쇄적이고 따뜻한 지방은 개방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선교장은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교장 주변에는 노비들이 살던 초가가 촌을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의 엄격한 계급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선교장에 들어서기 전 행랑채 바깥 마당에는 연못 위에 정자가 있고 행랑채 앞에 이르면 사랑채로 통하는 솟을대문과 안채로 통하는 평대문이 있다. 본채는 좌측에서부터 사랑채, 서재, 안채, 휴식처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서재와 안채 사이는 담장으로 막아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들이 나열형으로 배열되어 있어 밋밋한 느낌을 주지만 노송과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안정감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유스러워보이는 변화가 다양한 지붕선들의 조화와 살림집으로는 보기 드문 정자가 살림집의 활기를 더해주는 선교장은 중요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눈여겨 보기 Q

- **활래정** : 행랑채 바깥 마당에 있는 연못 위에 있는 ㄱ자형의 정자로 온돌방과 마루가 있어 여름공간과 겨울공간으로 구분되며 방과 마루를 연결하는 복도 옆에는 다실도 있다. 또한 벽이 없이 문으로만 둘러져 있어 문을 모두 열어 놓으면 자연이 정자 속으로 들어오며 마루 끝에 앉아 바라보는 연못이 운치있다.
- **솟을대문** : 행랑채 중간에 있는 문으로 '선교유거'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계단없이 경사진 출입구가 특이하며 대문을 들어서면 동쪽으로는 안채, 왼쪽으로는 사랑채가 보인다.
- **열화당** : 선교장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 중의 하나이며 대청, 사랑방, 침방, 누마루가 결합된 사랑채로 여름에 문을 전부 열어 놓으면 사방으로 통풍이 된다.
- **안채** : 주인이 살고 있는 안채는 행랑채의 동쪽에 있는 평대 문으로 들어가며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었다. 안방에는 부인이 거처하며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건넌방은 큰머느리가 거처하는 방이다.
- **동별당** : 원래는 동·서별당이었으나 서재로 쓰인던 서별당은 없어지고 안채와 연결되어 있는 동별당만 남아있다.
- **행랑채** : 일자형으로 늘어서 있는 행랑채는 지금은 유물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느껴보기

- **살림집에 녹아있는 유교** : 담장으로 남녀·상하의 영역이 구분되어지는 살림집에서 느낄 수 있는 엄격한 사회제도 느껴보기



소재 : 강원도 강릉시 윤정동

미리 알아보기

■ **민가건축** : 민가건축의 배치와 구성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남녀·상하의 구분이다. 담장을 두르거나 부지의 높낮이를 달리해 이를 구분하여 행랑채, 사랑채, 안채, 사당의 영역으로 나누고 전면에는 행랑채와 사랑채를 그리고 안채는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앉히고 사당 순으로 배치한다. 사랑채는 별채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一자나 ㄱ자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개방적이고 규모에 비해 너른 대청이 있게 마련이다. 반면 안채는 □자형 평면으로 폐쇄적으로 구성된다.

■ **선교장의 배치구성** : 민가건축의 배치와 구성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뉘어 진다.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선교장은 분산형 배치를 따르고 있다. 안동지방의 집중형 주택과는 달리 통일감과 짜임새는 조금 결여되어 있으나 다른 상류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미 넘치는 활달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허세와 유교적 규범도 약한 편이다.

■ **이내번** : 이내번은 세종대왕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의 11세 손으로 1760년경 배다리골에 선교장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9). 삶과 삶의 공간. 서울: 이상건축.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3. 서울: 돌베개.

소리의 정원 소쇄원에 대하여

담양의 계곡을 낀 야산에 조성된 소쇄원 원림은 양산보 일가의 별서에 부속된 원림으로 조선시대 원림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이다. 소리의 정원으로 불리는 소쇄원은 양산보가 30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40대에 완성한 것으로 남쪽으로는 무등산을 바라보며 장원봉과 까치봉을 잇는 산줄기를 뒤에 업고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폭포와 작은 소를 만들며 정원 가운데를 지나 대나무 숲을 빠져나가 창계천으로 합류한다. 계곡 양쪽 비탈에는 축대를 쌓아 꽃계단을 만들고 정자들을 지었으며 남쪽을 제외한 사방에 낮은 흙돌담을 쌓아 지식마을과 경계를 짓고 있다. 대나무 밭에서부터 시작되는 소쇄원은 안으로 들어서면 짙으로 이은 정자인 대봉대가 있고 왼쪽 계곡 건너 편에는 광풍각이 그 뒤로는 제월당이 있다. 자연자체를 뜰로 삼으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인공을 가해 건축물들을 전체 경관의 일부로 녹아 있게 한 조선시대 정원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소쇄'라는 말은 공덕장의 '북산이문'에 나온 말로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한다. 스승 조광조를 따라 주돈이를 존경한 양산보는 송나라 사람 황정견이 주돈이의 사람됨을 가리켜 '가슴에 품은 뜻의 맑고 맑음이 마치 비 갠 뒤 별이 나며 부는 바람과 같고 맑은 날의 달빛과 같다'고 한데서 따와 제월당, 광풍각이라 이름 지었다. 이곳에는 고경명, 김인후, 정철, 기대승 등 당대의 이름있는 문인 선비들

이 자주 드나들었었다. 1983년 사적 304호로 지정된 소쇄원은 조선시대 민간정원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눈여겨 보기

- **대나무숲** : 소쇄원이 시작되는 곳으로 대나무숲 사이로 계곡 물이 흘러 나온다.
- **대봉대** : 소쇄원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초가정자로 소쇄원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대봉대는 봉황처럼 소중한 손을 기다려 맞는다라는 뜻이 담긴 곳이다.
- **애양단** : 대봉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동쪽 담에 있는 판으로 유난히 별이 바르기 때문에 김인후가 노래한 ‘소쇄원사십팔경’ 가운데 ‘애양단의 겨울낮’이 들어간다.
- **오곡문** : 담 밑 구멍으로 흘러든 계곡물이 암반 위에서 다섯 굽이를 이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담에 새겨진 판이다.
- **매대** :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만나는 비탈의 침식을 막기위해 쌓은 두 단으로 된 꽃계단으로 매화를 심어 매대라 불렀다. 매대 뒤의 담에는 ‘소쇄처사양공지려’(소쇄처사 양공의 조출한 집)라는 송시열 글씨의 판이 박혀 있다.
- **제월당** : 소쇄원의 가장 높은 곳 매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사랑채와 서재를 겸하고 있으며 마루에 앉으면 앞산이 보인다. 현판 글씨는 송시열이 쓴 것이다.
- **광풍각** : 소쇄원의 중심 공간으로 매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가운데 한 칸에 방을 돌리고 빙 둘러가며 마루를 깔아 소쇄원의 풍광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거처로 쓰였던 광풍각의 현판 글씨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미리 알아보기

■ **별서정원** : 별서란 살림집에서 떨어져 산수가 좋은 곳에 마련된 주거공간을 뜻하고 이곳에 정자와 더불어 조성되는 정원을 별서정원이라 한다. 별서정원은 삼국시대에 귀족들에 의해 생겨났으며, 고려시대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문신들에 의해 일반 민가에까지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선조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사색당파와 잦은 사화로 많은 선비들이 낙향하

여 은둔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 **정원건축** : 담양 일대의 대부분의 정자들은 가운데에 온돌방을 1칸 두고 그 주변을 모두 마루로 감싸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마루면을 높게 함으로써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자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양산보** : 양사원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양산보(1503~1557)는 조광조 밑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으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전라남도 승주로 유배되어 사약을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55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고향의 자연에 묻혀 지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9). 삶과 삶의 공간. 서울: 이상건축.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유홍준(199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정재훈(1995). 문화의 산길 들길. 서울: 화산문화.
- ♣ 최성민(1996). 그곳에 다녀오면 공부할 맛이 난다 2. 서울: 대원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5. 서울: 돌베개.

우리의 사상을 찾아서

답사하기에 앞서

송광사

도산서원

돈암서원

다산초당

동학혁명모의탑

우리의 사상은

세계에서 단일 언어로 사고하고 생활하는 몇몇 안 되는 민족 중의 하나인 우리 민족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이념 이후 인간존중과 인간중심적 성향을 바탕으로 외래의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위대한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삼국통일의 기반을 이루며 통일신라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불교정신과 고려말에 수용되어 조선건국의 이념적·철학적 바탕이 되었던 성리학,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의 지배 계층이 백성을 이끌어 갈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정치적·문화적으로 새로운 사상이었던 실학사상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훗날 삼일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동학사상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의 사상은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불교계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의 근본도량이자 승보사찰인 송광사를 통해서 불교사상을, 한국 유학사의 큰 별인 퇴계 이황을 모신 영남학파의 산실인 도산서원과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쌍벽을 이루었던 관념적 도덕세계보다는 경험적 현실세계를 존중하는 선비들의 학맥인 기호학파의 기반을 다진 사계 김장생을 배향한 돈암서원을 통해서 성리학을, 조선 후반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이학(성리학)과 예학으로 대표된 당시의 전통 유학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사상으로 민족의 존립·번영을 전제로 한 근대지향 사상인 실학사상은 다산초당

에서, 양반사회의 해체기에 농민대중의 종교가 되어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되고 자주독립의 민족주의 역량을 키운 민족운동세력으로까지 발전되었던 동학사상은 농민봉기의 현상이었던 동학혁명모의탑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내려 온 우리의 사상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세기의 사상 찾기

세계화·무국적화 되어가는 새로운 세기에 사상의 보고를 답사하면서 한 시대의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사상의 체계를 사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의 우리의 시대적 숙제, 새로운 사상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불교사상의 중심지 송광사에 대하여

전라남도 순천 조계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절집의 ‘큰 집’인 송광사는 우리 불교계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의 근본도량이자 승보사찰로 유명하다. 송광사라는 이름은 소나무가 많아 ‘솔피’라고도 불리던 송광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송광산은 조계산으로 바뀌었다. 송광사는 신라말 혜원선사에 의해 창건된 길상사라는 조그마한 절이었으나 큰절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새 불교사상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보조국사가 고려 후기 불교계가 혼탁해지자 이를 반성하고자 펼친 수행운동인 정혜결사의 중심지로 삼은 1197년부터이다. 보조국사는 절 이름을 수선사로 바꾸었으나 조선 초기에 이르러 송광사로 바뀌었다. 고려 명종 때는 80여 동을 갖춘 대가람으로 비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경내를 오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송광사는 폐사위기와 중창을 거쳐 현재는 50여 동의 전각이 있는 사찰로 우리 불교의 사상적 기둥을 이루고 있다. 비공개 영역이 많기는 하지만 둘러볼수록 큰절임을 느낄 수 있다.

눈여겨 보기

- **가람배치** : 송광사 주변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혼치않게 서향하고 있다. 송광사의 경내는 댄 위쪽에 참선하는 곳인 수선영역, 가운데에 대웅보전영역, 아래 쪽에 진입영역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전각 50여 동이 대웅보전과 앞마당을 중심으로 중심원을 그리듯 모여있다. 승보사찰인 송광사답게 승려들의 참선공간을 대웅보전 뒤쪽 높은 곳에 배치하였다.

■ **청량각** : 송광사로 들어가는 입구 내를 가로지르는 무지개다리 위에 서있는 정자이다.

■ **천주각과 세월각** : 죽은 사람의 위패가 사찰에 들어오기 전 세속의 때를 깨끗이 씻는 장소로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종교적 건물이다.

■ **능허교** : 일주문을 지나 왼쪽에 위치한 무지개 다리로 다리 안쪽에는 재해를 막는 주술적인 기능을 지닌 이무기들이 박혀있다.

■ **우화각** : 능허교 위에 놓인 문루로 팔각지붕과 맞배지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 **침계루** : 우화각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층 누각으로 스님들의 학습공간이다. '사자루'라고도 불리우며 '시내를 베고 누워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임경당** : '거울에 비추어 보는 집'이란 뜻처럼 아름다운 □자형 건물로 계류에 두발을 담근 듯 건물 일부가 계류 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 **대웅보전** : 1988년 새로 지은 송광사의 중심건물로 대단한 규모와 亞자형의 이색적인 구조가 특이한 건물로 과거의 연등불, 현세의 석가모니불, 미래의 미륵불 세 분과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보살 네 분을 모시고 있다.

■ **지장전** : 사후의 지옥세계를 구제한다는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시고 있는 전각으로 송광사가 선종의 뿌리 위에 대승적임을 보여 주는 곳이다.

■ **승보전** : 중창 이전에 대웅전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옮겨 지은

것으로 송광사가 승보사찰임을 상징한다.

■ **관음전** : 일반에게 공개된 전각 중 가장 고풍스러운 건물로 1902년 고종의 원당으로 지어진 건물을 1957년 현재자리로 옮겨왔다.

■ **성보각** : 송광사에 있는 문화재 등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보조국사부도** : 관음전 뒷편 언덕에 모셔져 있는 고려 후기의 부도이다.

■ **수선영역** : 송광사가 승보사찰임을 보여주는 수선영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웅보전 뒤편의 높은 석축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16국사의 영정을 모셨던 국사전, 설법전, 수선사, 선방으로 쓰던 하사당과 상사당, 응진전 등의 건물이 있다.

■ **화엄전영역** : 절 남쪽에 따로 자리잡고 있으며 화엄전에는 빼어난 불화인 ‘화엄도’가 모셔져 있다.

느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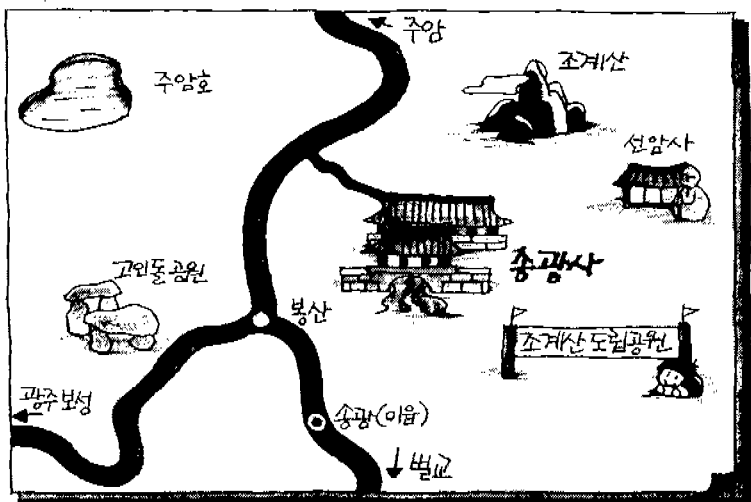
■ **송광사의 풍광** : 계류와 능허교, 우화각이 이루는 풍광은 송광사 최고의 풍광으로 꼽히는데 침계루 옆을 지나 우화각으로 흘러 내려오던 시내물이 임경당 앞에 이르면 고여있다가 작은 폭포를 이루며 계곡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 마치 송광사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듯하다.

더 살펴보기

■ **송광사부도밭** : 불일암으로 가는 도중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조국사 부도비와 크고 작은 부도와 비석 30여 기가 있다. 부도는 전통적으로는 산내 각 명당 터에 암자를 지어 보호하였으나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억불정책으로 부도를 한 곳에 모아 놓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미리 알아보기

■ **승보사찰** : 불교 교단 형성의 세 가지 요소인 불, 법, 승 가운데 승, 즉 훌륭한 스님을 많이 배출한 사찰을 말한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을 비롯한 16명의 국사를 배출하고 그 영정을 보관하고 있어 승보사찰로,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가져온

석가모니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모시고 있어 불보사찰로 해 인사는 고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어 법보사찰이라 부르며 이들 세 사찰을 일컬어 삼보사찰이라 한다.

■ **보조국사 지눌** :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부모님이 건강해지면 출가시키겠다고 부처님께 빌어 병이 낫자 8세에 출가시켰다. 25세에 승과에 급제했으나 불교 개혁에 더 관심을 두고 31세에는 체계적 수행실천운동인 정혜결사를 다짐하고 이후 정혜결사의 이론을 펴기 위해 40세가 되던 해 지리산으로 들어가 3년간의 은둔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송광사인 길상사에 자리를 잡고 정혜결사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 이후 송광사는 정혜결사운동의 본고장이 되었다. 깨달음 뒤에도 그 경지를 잃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돈오점수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를 주장하며 중국 선의 맹목적 답습에서 벗어나 조계종이라는 독창적인 선풍을 일으킨 보조국사는 53세 때 설법 도중 열반에 들었다.

■ **정혜결사** : 고려 말기에 학문불교이자 체제불교인 교종 종파의 대립 등으로 혼란스럽자 불교계에서 기존불교를 반성하고 불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각종 수행결사가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조국사의 정혜결사였다. 불교수행의 핵심을 이루는 정(定)과 혜(慧) 즉 선과 화엄은 둘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두 가지를 함께 닦자는 수행실천운동으로 돈오점수라는 말로 요약된다. 돈오란 인간의 본심은 깨달아보면 부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며, 점수란 돈오하여도 번뇌는 곧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박 현(1995). 우리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백산서당.
- ♣ 이형권(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11. 서울: 돌베개.

영남학파의 산실 도산서원에 대하여

도산서원은 한국 유학사의 큰 별인 퇴계 이황을 모신 서원이다. 영남학파의 산실인 도산서원이 서원으로 꾸며진 것은 1574년이지만 퇴계가 이곳에 자리잡은 것은 1557년(명종 12년)으로 높지 않은 산자락에 사당, 재실, 강당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에는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짓고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쳤다. 도산서당이 서원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것은 퇴계의 사후 그를 흠모하던 제자들과 고을의 선비들이 선생을 모실 사당과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을 서원을 세우면서부터이다. 1575년에 선조로부터 사액을 받았으며 강당을 아래쪽에 사당을 위쪽에 배치해 전학후묘의 서원의 양식의 틀을 최초로 정립하면서 다른 서원들의 모본이 되었다.

눈여겨 보기

- **도산서당** : 퇴계선생이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세칸 집이다. 퇴계는 온돌방을 ‘완락재’, 마루를 ‘암서헌’이라 하였고 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 **절우사** : 퇴계선생이 ‘몽천’이라 이름지은 샘 위의 산기슭에 작은 단을 쌓고 매화, 대나무, 소나무 등을 심어 가꾸던 화단

으로 자연스레 뒷산과 이어지게 함으로써 자연을 끌어안아 정원으로 삼은 퇴계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농운정사** : 도산서당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기거하던 곳으로 숙세와 떨어져 학문을 닦고 심신을 수양하는 주자의 영향을 받은 곳이다. 문과 창이 많아 산만한 느낌을 주지만 안에 들어서면 정연한 배치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대청의 앞면과 측면에는 관문을 설치하여 시선이 자연을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서광명실** : 서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현관은 퇴계선생의 친필이다. 동광명실에는 퇴계가 소장하던 책과 서간집, 임금이 내려준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 **전교당** : 높은 축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강당으로 전교당 정면에는 선조가 명하여 조선 중기의 명필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 현판이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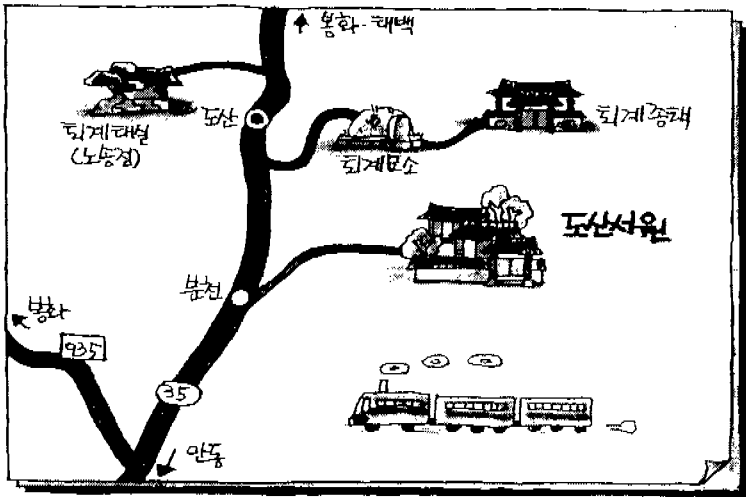
■ **동재와 서재** : 유생들이 기거하는 숙소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동재는 ‘박약재’ 서재는 ‘홍의재’이다.

■ **장판각** : 서원에서 찍어낸 책의 목판본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 **상덕사** : 퇴계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그 옆에는 제수를 마련하는 전사청이 있다.

■ **유물전시관** : 퇴계선생이 생전에 쓰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시사단** : 서원의 건너편 안동호 가운데 작은 집으로 1792년 3월 정조가 특별히 영남사림을 위해 도산서원에서 과거를 치루었던 것을 기념하여 단을 쌓고 전각을 세운 것이나 안동댐 건설로 물에 잠기게 되자 지금과 같이 축대를 쌓아 옮긴 모습이다.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미리 알아보기

■ **퇴계 이황** : 1501년(연산군 7년) 안동에서 태어난 퇴계 이황은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며 스무살에는 벌써 주역을 홀로 탐구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 번 낙방하여 서른 세 살에 이르러서야 문과에 합격하여 비로소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40 후반에는 풍기군수가 되어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고 지방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제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우기도 했다. 57세에 도산서당을 짓기 시작하여 덕망 높은 학자로 전국에 알려져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다. 뛰어난 성리학자이자 이론가인 그는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지었고 ‘도산십이곡’ 등을 남겨 시인

으로서도 빼어났다. 퇴계의 사상은 50에서 60세 사이에 걸쳐 완성되었고 그의 중요한 저술인 ‘계몽전의’ ‘사단칠정분리기서’ 또한 이 기간에 완성되었다. 퇴계는 우주만물은 이와 기의 이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우주의 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악이 없이 선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며, ‘기’는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심성문제를 해석함에도 ‘이기이원론’으로 분석하였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유홍준(199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이태원(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 청림출판.
- ♣ 최완기(1995). 한국의 서원. 서울: 대원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서울: 돌베개.
- ♣ 한승희 외(1993). 역사인물기행활동.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 황원갑(1995). 역사인물유적순례. 서울: 수문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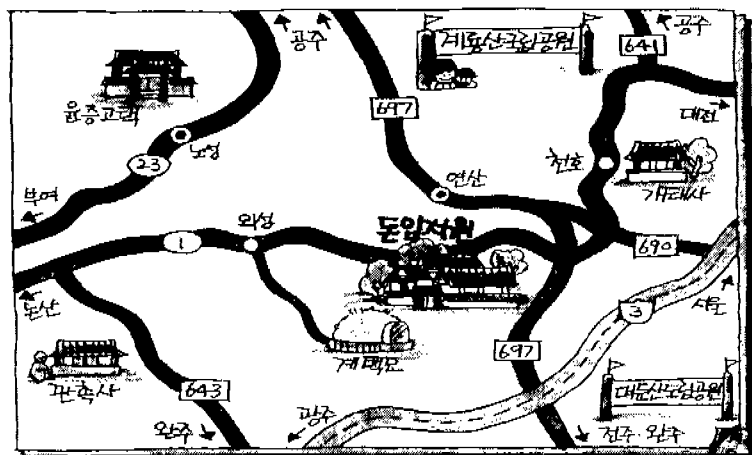
기호학파의 산실 돈암서원에 대하여

조선 중기 이후 우리 나라 예학의 산실이 되었던 학문과 교육의 장인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임리에 너른 들을 바라보는 마을 한쪽 언저리에 자리잡고 있다. 돈암서원은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쌍벽을 이루었던 관념적 도덕세계보다는 경험적 현실세계를 존중하는 선비들의 학맥인 기호학파의 기반을 다진 사계 김장생을 배향한 서원이다. 김장생은 스승인 율곡 이이의 학문을 바탕으로 김집, 송시열, 송준길, 장유, 이경석 등 많은 명사를 길러내어 경기도와 충청도를 터전으로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였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의 사후 3년 만인 1634년(인조 12년) 김장생의 제자들이 스승의 덕망을 기리기 위해 스승이 공부하고 가르치던 자리에 세운 것으로 처음에 터를 잡았던 곳은 연산군 하암리로 지금 서원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아니었다. 처음 자리잡았던 서원의 북쪽에 돈암이라 부르는 바위가 있어 서원이름도 그 이름을 따라 돈암서원이라 하였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헐리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이 백년이 훨씬넘게 옛모습을 지켜오다가 홍수 때만 되면 물이 넘쳐 1880년(고종 17)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김장생의 아들인 김집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던 돈암서원에는 김장생과 아울러 김집, 송시열, 송준길을 배향하고 있다.

눈여겨 보기 🔍

- **응도당** : 입덕문(정문)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면 5칸 맞배지붕 건물로 사계가 생전에 학문을 닦고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 양성당의 후신으로 돈암서원의 강당이다.
- **정의재 · 거경재** : 정문에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원생들의 숙소인 동·서 재실이다.
- **사당** : 유경사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사당의 다른 공간과 구획짓기 위한 둘레담이 꽃담으로 되어 있어 특이하다.
- **장판각** : 김장생, 김집의 저술을 찍어내던 목판본이 보관되어 있다.
- **돈암서원비** : 재실 바로 앞에 있는 기념비로 1669년(현종 10년)사액을 기념하여 송시열이 찬하고 송준길이 쓴 비문이다.

찾아가는 길 🚗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임리



미리 알아보기

■ **기호학파** : 율곡 이이의 성리설을 추종하는 성리학자들에 대한 총칭으로, 퇴계 이황의 학설을 따르는 영남지방의 성리학자들을 지칭하는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시대 유학의 쌍벽을 이루었던 학파이다. 기호지방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와 충청도 일원으로서 이곳에서 이이의 성리설을 추종하는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기호지방의 중심인물은 이이, 성혼, 송익필로 대표되며 이들 세 학자에게 두루 배워 기호의 학문을 형성한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이이의 문하에서 그의 학통을 계승한 김장생을 비롯하여 정엽, 송시열 등을 들 수 있다. 기호학파의 연원은 이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주로 서인 중심이었으며 기호학파의 흐름은 예학과 의리학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당파적 갈등과 당쟁의 사상적 입장에 편승하기도 하였다.

■ **김장생** : 1548년(명종 3년)에 태어나 1631년(인조 9년)에 별세한 조선 중기의 학자로 호는 사계이다. 1560년 송익필로부터 ‘사서’ ‘근사록’ 등을 배웠고 20세 무렵에 율곡 이이의 문하생이 되었다. 과거를 치르지 않았고 늦은 나이에 벼슬에 올라 요직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인조반정 이후로는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낙향을 거듭하다 1630년 이후에는 조정에 나가지 않고 계속 향리인 연산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며 기호학파의 기반을 다지고 송시열, 송준길, 이경석 등 당대의 비중 높은 명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학문적으로 송익필, 이이, 성혼 등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었지만 예학 분야는 송익필의 영향이 컸으며 아들 집에게 예학

을 계승시켜 조선예학의 태두로 예학파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김장생은 예의 실천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음으로써 전통예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저서로는 <상례비요>4권을 비롯하여 <가례집람> <전례문답> <의례문해> 등 예에 관한 것이 있고 <근사록석의> <경서변의>와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가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 수(1999). 서원기행. 서울: 교보문고.
- ♣ 최완기(1995). 한국의 서원. 서울: 대원사.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실학사상의 산실 다산초당에 대하여

전라남도 강진군 굴동마을에 있는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시절 제자들을 가르치던 초당으로 다산이 떠난 뒤 폐가 된 것을 1957년 기와집으로 복원한 것이다. 다산은 차나무가 많았던 만덕산의 별명으로 정약용의 호는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다산초당은 본래 윤단의 산정이었으나 다산의 외가인 해남 윤씨 일가의 호의로 1808년 이곳으로 옮겨와 기거하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을 남겼다. 다산 초당에서 정약용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는 초당 옆의 인공연못과 앞마당의 차를 달이던 ‘다조’라 불리는 넓적한 바위, 그리고 차를 끓일 때 쓰던 샘과 신선들이 놀던 부용성으로 비유하여 ‘정석’이라 새긴 바위만 있을 뿐이다.

눈여겨 보기

- **초당** :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실이었으며 원래 초당의 터에 비해 너무 크다 싶은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다산초당’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새긴 것이다.
- **동암** : 다산이 천여 권의 책을 쌓아 놓고 기거하던 곳으로 다산의 글씨를 집자해서 만든 ‘다산동암’ 현판과 추사 김정희가 쓴 ‘정약용을 보배롭게 모시는 산방’이라는 뜻의 ‘보정산방’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 **서암** : 제자들의 거처였던 곳이다.
- **다조** : 초당 앞마당에 있는 넓직한 바위로 다산이 술방울을 태워 차를 달이던 곳이다.
- **정석(丁石)** : 초당 오른쪽 바위에 다산이 손수 쓰고 새긴 각자로 다산 유배시절의 유적이다.
- **연못** : 초당 옆에 있는 네모진 연못으로 중앙에는 자연석을 쌓아 둥근 섬을 만들었으며 작은 폭포도 만들고 연못 뒤쪽에는 단을 만들어 꽃나무도 심었다.
- **천일각** : 다산의 유배시절에는 없던 건물로 동암을 지나 비탈길을 돌아가면 구강만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정자이다.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던 곳으로 다산이 쉬거나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던 터에 정자를 새로 지은 것이다.

느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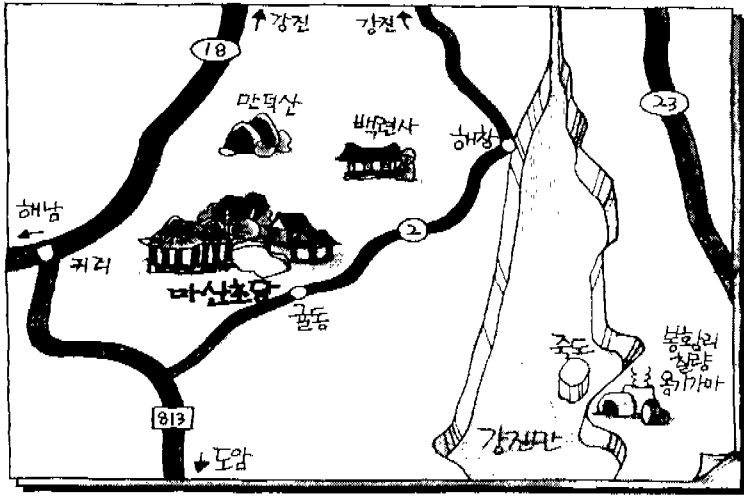
- **다산초당에 오르는 길** : 대나무와 소나무가 뿔뿔하게 들어서 있어 대낮에도 그늘이 짙은 오솔길을 오르며 다산의 유배시절의 심경 느껴보기
- **천일각에 올라보기** : 다산초당을 벗어나 천일각에서 구강포를 바라보며 다산의 실학정신과 애민사상 느껴보기

주변 살펴보기

- **백련사** : 다산이 강진에서의 유배시절 다산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고 차를 알게 했던 혜장선사가 거처했던 절로 다산초당

천일각을 지나 만덕산의 오솔길을 따라 40분 정도 가면 다다른다. ‘대웅보전’ 현판은 원교 이광사의 글씨이며 3월달을 전후한 동백숲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이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미리 알아보기

■ **실학사상** : 조선 후반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이학(성리학)과 예학으로 대표된 당시의 전통유학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사상으로 민족의 존립·번영을 전제로 한 근대지향 사상이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에서는 자연과학과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류형원, 이익,

정약용이 대표인물이다. 이익을 대표로 하는 경세치용 학파는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 등 제도상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후생 학파는 상공업의 유통 및 기술 혁신을 지표로 삼았으며,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는 실사구시학파는 경서 및 금석의 고증을 위주로 하였고 이 3개 유파를 집대성한 학자로는 정약용을 들고 있다.

■ **정약용** : 1762년(영조 38)에 경기도 광주군 마현리에서 태어나 1836년(헌종 2) 75세로 별세한 조선 중기의 학자로 호는 다산이다. 그가 태어나던 해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해로 이후 조정은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시파(남인)와 반대하는 벽파(노론)로 나뉘어 조선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다산의 생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28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 시작하여 정조의 명령으로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도 남겼다. 33세 때에는 암행어사를 하면서 농민의 참상도 알게 되었으나 정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자 조정의 주도권이 벽파에게로 넘어가고 급기야는 1801년(순조 1)에 일어난 신유박해로 다산은 셋째 형 정약종을 잃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저서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이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박 현(1995). 우리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백산서당.
- ♣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서울: 창작과비평사.
- ♣ 이형권(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 최성민(1996). 그곳에 다녀오면 공부할 맛이 난다 2. 서울: 대원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5. 서울: 돌베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황원갑(1995). 역사인물유적순례. 서울: 수문출판사.

동학혁명모의탑에 대하여

동학혁명모의탑은 전봉준 등 19명의 농민지도자들이 송두호의 집에 모여 농민봉기를 모의하고 봉기의 당위성을 밝히는 격문과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돌아가며 서명을 했었는데 이를 기리려고 1969년 주산마을 입구에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마을로 넘어가는 야트막한 고개 위에 소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탑의 측면에는 사발통문 내용과 건립유래가 적혀있다.

눈여겨 보기

- **사발통문내용** : 동학혁명모의탑의 측면에 새겨져 있는 사발통문 내용에는 고부성을 부수고 고부군수 조병갑의 목을 벨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하고 농민을 침해한 자들을 가려내고 전주 감영을 함락한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간다는 4개 항의 행동목표가 적혀있다.

주변 살펴보기

- **고부 관아터** : 갑오년 당시에는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큰 고을이었던 고부는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부임해 오면서 수탈을 일삼아 급기야 1894년 1월 10일 농민봉기를 유발시켰다. 당시 고부 관아가 있던 자리로 지금은 초등학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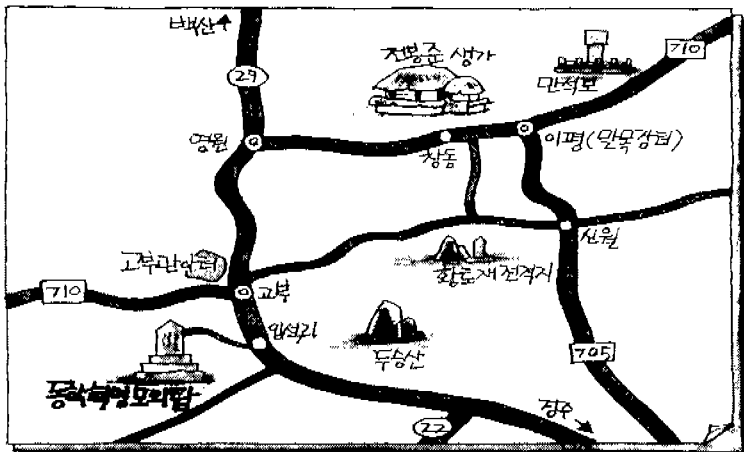
들어서 있어 그 왼쪽의 향교와 뒤편의 고부읍성의 흔적만이 고부 봉기가 일어났던 옛날을 짐작하게 해 준다.

■ **황토재전적지** :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에 있는 황토재는 갑오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맞아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전적지로 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다. 황토재 마루턱에는 동학혁명기념탑이 서 있고 그 동남쪽 기슭에는 황토재전적지 기념관이 있다.

■ **전봉준 옛집** : 정읍군 이평면에 있으며 갑오농민전쟁 당시 전 봉준이 살던 집을 복원한 것이다.

■ **만석보터** : 정읍군 이평면에 있는 만석보터는 전라북도 기념 물 제33호로 당시의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물세를 받기 위해 만든 만석보를 1894년 고부 봉기 때 농민들이 헐어버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찾아가는 길 



☞ 소재 :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미리 알아보기

■ **동학** : 서교(천주교)의 도래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 나라의 도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동학’이라 이름 붙인 동학은 1860년(철종 11)에 최제우가 창도한 종교로 시천주신앙에 기초하면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을 내세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종교이다. 1905년에는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사상에 기초하게 된다. 동학사상은 양반사회의 해체기에 농민대중의 종교가 되어 사회개혁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족주의 역량을 키운 민족운동 세력으로까지 발전되었다.

■ **전봉준** : 1855년(철종 6)에 태어난 조선말기 갑오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지금의 정읍)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양반계층에 속하기는 했지만 몰락하여 몹시 가난했던 그는 몸이 왜소했기 때문에 늑두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아버지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다 모진 고문 끝에 한달만에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가 훗날 사회개혁의 큰 뜻을 품게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35세(1890년) 전후에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으로부터 고부지방의 동학접주로 임명된 전봉준은 동학을 사회개혁의 지도원리로 삼고 농민운동을 지도해 나갔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뛰어난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으나 옛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순창에서 체포되어 1895년 교수형을 당했다. 농민전쟁의 실패와 전봉준의 죽음을 아타까워 하며 부르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 **갑오농민전쟁** : 갑오농민전쟁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 등의 지도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거의 1년 동안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등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된 우리 나라 근대사에 굵직한 선을 그은 사건이다. 갑오농민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고부군수를 지내던 조병갑의 끝없는 탐학에 대한 항거였지만 크게는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지양하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동학도를 포함한 농민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자 민족역량의 표출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은 실패했으나 이 정신과 세력은 훗날 항일의병항쟁의 중핵세력이 되었고 이어 3.1독립운동으로까지 계승되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서울: 창작과비평사.
- ♣ 이형권(1995). 국토는 향기롭다. 서울: 미래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4). 답사여행의 길잡이 1. 서울: 돌베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리의 문학을 찾아서

답사하기에 앞서

식영정

보길도

신재호고택

이호석생가터

정선아우라지

우리의 문학은

우리의 문학은 부여와 삼한에서 행하여진 제천의식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한글문학의 대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 7세기경으로 정철, 윤선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정철은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식의 하나인 가사문학을 통해 유교적 세계의 모순을 도교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한 반면 윤선도는 유교 이념을 신봉하는 사대부로서의 절조를 간결한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단가문학의 대가로 자리잡았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난과 영광의 삶이 담겨져 귀와 입으로만 전해진 민중언어이자 산문문학으로서의 아리랑과 우리 민족의 정서와 벗과 풍류가 어우러진 민중음악이자 민족문학인 조선시대 평민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속종 무렵에 발생한 판소리에서는 우리 민족의 해학과 애환, 서정성이 느껴진다. 아울러 1930년대의 우리 나라 문단에서 가장 참신한 언어감각과 기교를 겸비한 이효석은 고향 봉평의 산천을 무대로 향토적 정서가 짙게 표현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과 우리 민족의 소박함을 그려냈다.

여기에서는 송강 정철의 가사문학의 터가 되었던 식영정과 고산 윤선도의 단가문학의 터인 보길도를 통해 그리고 잔잔한 흐름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서글픔을 지니고 있는 정선 아라리의 고향 정선에서, 판소리의 사설을 집대성하여 민족문학으로 승화시킨 판소리의 요람이었던 사랑채만 남아 옛날의 영화를 말하

고 있는 신재효고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과
소박함을 노래한 작품의 고향 봉평에서 우리 문학의 흐름을 살
피고 느껴본다.

행간의 의미 찾기

우리의 문학유산 감상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사의 흐름 속에
서의 그 작품들의 문학적 가치가 아니라 그 문학이 피어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행간에 숨겨져 있는 작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사문학의 터 식영정에 대하여

송강 정철의 가사문학의 터인 식영정은 자미탄 여울가에 있는 정자 중 가장 전망이 좋은 별파라고도 부르는 성산의 한끝 언덕배기 벼랑에 위치하고 있는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서재와 넓은 툇마루로 이루어진 정자이다. 식영정은 1560년 서하당 김성원이 그의 장인인 석천 임억령에게 지어드린 정자로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식영정에는 호남 사람의 명현들이 자주 찾아 자연과 벗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시를 짓곤 했는데 임억령, 김성원, 정철, 고경명은 '식영정 사선'이라 불리웠다. 그러나 식영정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한 글은 송강 정철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성산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성산별곡--어떤 지날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말 들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많건만은 어찌 한세상을 갈수록 낮게 여겨 적막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이었다.

눈여겨 보기

- **성산별곡시비** : 식영정 앞마당 소나무 앞에 <성산별곡> 한 구절을 새겨놓은 시비가 세워져 있다.
- **부용당** : 식영정 돌계단을 오르기 전 오른쪽에 위치한 연못에 있는 정자로 1972년에 지은 것이다.
- **서하당터** : 부용당 뒤편에 있는 김성원이 거처하던 곳이다.

느껴보기

- **식영정 뒷마루에 앉아** : 절벽아래 자미탄 여울을 비롯하여 주변의 풍광을 둘러보고 사색의 평은 느껴보기

주변 살펴보기

- **조대** : 환벽당 입구 소나무 옆에 있는 큰 바위로 <성산별곡>에 나오는 조대이다.
- **환벽당** : 서하당에서 자미탄 건너 마주보이는 곳에 위치한 환벽당은 송강의 스승인 김윤제가 을사사화 이후 벼슬을 버리고 칩거하기 위해 지은 서재로 환벽당 현판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이다. 이곳은 송강 정철이 열 여섯 살 때부터 벼슬길로 나아갈 때까지 드나들던 곳으로 환벽당의 뒷마루에 앉으면 자미탄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자곡리

미리 알아보기

■ **가사문학** : 조선시대 초기에 발생한 시가의 한 형식인 가사체로 된 문학을 일컫는다. 형식은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고 행수에는 제한이 없다. 조선시대 초기의 가사들은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미덕과 은퇴한 관료의 생활 등을 자연 속에 묻혀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많았는데 정철의 <사미인곡>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의 가사는 현실주의적인 사고의 대두와 평민과 부녀자들의 문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고 내방가사도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초기의 전통적인 가사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 **정철** : 1536년(중종 31)에 태어나 1593년(선조 26)에 별세한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로 호는 송강이다. 인종의 귀인인 만수이와 계림군의 부인이 된 둘째 누이 덕분에 증중에 출입하면서 어린 경원대군(훗날의 명종)과 친숙하게 지냈다. 명종이 즉위하던 1545년 을사사화 때 계림군이 연류되어 아버지가 유배 당하자 유배지에 함께 있다가 1551년 특사를 받고 풀려나 김윤제의 문하생이 되어 성산 기슭의 송강가에서 10년 동안 수학하면서 기대승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배움을 받고 이이, 성혼 등과도 교류하였다.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면서 시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 때 송강의 최초의 가사인 <관동별곡>을 지었고 시조<훈민가> 16수를 지어 백성들이 낭송하게 하기도 하였다. 1585년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4년 동안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었다. 1589년 우의정으로 발탁되면서 다시 관직으로 나아가나 광해군 책봉을 건의

했다가 유배된 후 1592년 임진왜란 때 다시 부름을 받지만 동인들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에서 단년을 보냈다. <송강집> <송강가사> <송강별추록유사> 등의 저서와 시조 70여 수가 전해진다.

■ **성산별곡** : 송강 정철이 조선 선조 때 당쟁으로 정계를 물러나 있을 때 지은 가사로 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치와 풍류를 예찬한 노래이다. 총 84절(행) 168구로 3·4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내용은 전체를 6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은 식영정의 자연경관을, 제2단은 성산의 봄 경치와 생활을, 제3단은 성산의 여름 풍경을, 제4단은 성산의 가을 달밤 풍경을, 제5단은 눈 내린 성산의 겨울경치를, 제6단은 산중에서의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9). *앓과 삶*의 공간. 서울: 이상건축.
- ♣ 박 현(1995). *우리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백산서당.
- ♣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서울: 창작과비평사.
- ♣ 이강로 외(1987).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서울: 시인사.
- ♣ 이형권(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5*. 서울: 돌베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황원갑(1995). *역사인물유적순례*. 서울: 수문출판사.

단가문학의 터 보길도에 대하여

고산 윤선도의 단가문학의 터로 어부사시사의 산실인 보길도는 부용동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고산 윤선도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부용동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학문을 강론하고 거처하던 살림집인 낙서재 주변과 산중턱에 마련된 사색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인 동천석실 그리고 놀이공간인 세연정 주변으로 나뉘어 진다. 윤선도는 여기를 7차례에 걸쳐 13년간 머물면서 자연을 기묘하게 이용하여 절묘하게 연출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소박한 생활을 우리 말로 훌륭하게 그려낸 '어부사시사'등 국문학사상에 빛나는 작품들을 남겼다.

눈여겨 보기

■ **세연정** : 세연이란 주변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세연정은 부용동 정원에서 가장 공들여 꾸며진 곳이며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자연과 인공이 조화롭게 어울린 우리나라 원림의 백미를 보여준다. 원림 전역의 부분들은 세심하게 고안되어 있는데 정교하게 쌓여진 돌다리(비홍교)와 개울의 물을 가두기 위해 축조된 판석보가 그러하다. 원림의 중앙에 놓인 세연정은 앞으로는 자연적인 연못을, 뒤로는 인공적인 연못을 바라보게 되어있고 북쪽으로는 기암괴석의 정원을 남쪽으로

는 동대와 서대에서 춤추던 무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 **낙서재** : 보길도 안에서 가장 좋은 양택지로 윤선도의 생활공간이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처음에는 ‘소은병’이라는 바위 아래 초가를 지었으나 초가를 헐고 낙서재를 조성하였으며, 남쪽에 사랑채 격인 단칸집을 세워 ‘무민당’이라 하고 낙서재와 무민당 사이에 ‘동와’와 ‘서와’라는 부속채를 지어 전체적으로는 □자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 **동천석실** : 낙서재에서 마주보이는 앞산 기슭에 있으며 이 곳에 오르면 부용동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며 적자봉과는 나란히 마주하고 있다. 암반 절벽 위 좁은 터에 자리잡은 석실 일대는 3단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자연지형과 암석을 이용하고 약간의 인공미를 가미하고 있는데 가장 아래 부분은 3개의 연못이 있는 석담과 회황교 일대로 암반사이에 세모꼴로 이루어진 자연 연못에서 회황교를 건너면 두 개의 인공못인 석담에 이른다. 여기서 좁은 돌계단을 오르면 차바위 일대에 이른다. 넓적한 바위들을 이용하여 차를 마실수 있도록 차상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몇 개의 홈도 파져있다. 이 일대에는 절벽을 주름지게 깎은 석폭도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서 다시 돌계단을 오르면 두 개의 우뚝 솟은 바위가 석문을 이루며 가장 정상부인 석실에 이른다. 급한 경사암반 위에 작은 석축들을 쌓아 계단식 화원을 조성하고 그 위에 한 칸짜리 정자건물을 세웠다. 목조건물이지만 바위 절벽사이에 있다 하여 ‘석실’이라 한다. 석실 앞에 있는 두 바위 사이에 용두레(나무로 만든 전통적인 도르레)를 달고 줄을 설치하여 절벽 아래 마을에서 음식을 날랐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살림집인 낙서재와 연락할 때에는 깃발을 이용했다고 한다.

- **천연의 아름다움 속에서의 사색** : 어부사시사 중의 한 구절-
 ‘앞강에 안개 걷고 뒷산에 해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 썰
 물은 물러가고 밀물이 밀려온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강촌
 의 온갖 꽃의 먼 빛이 더욱 좋다- 을 떠올리며 동천석실에서
 사색의 평온 느껴보기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보길리

 미리 알아보기

- **윤선도** :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의 3대 가인으로 꼽히
 는 윤선도는 선조20년(1587)에 나서 광해군, 인조, 효종 대를
 거치고 현종 12년(1671)에 별세함으로써 85세라는 장수를 누

렸으나 세 차례에 걸친 유배생활로 20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으며 부용동 등에서 은거생활을 하는 동안 ‘오우가’ ‘어부사시사’ 등을 남김으로써 우리 나라 단가 문학의 거성으로 자리잡았다. 51세 되던 인조 15년에 왕(인조)이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세상을 멀리하고자 제주도로 향하던 도중 최고의 예술적 안목뿐만 아니라 풍수에도 일가견이 있던 그는 보길도를 발견, 그 빼어난 산수에 매혹되어 그 곳에 자리를 잡고 부용동 정원을 꾸미기 시작하며 자연에 묻혀 지냈다. 그리고 그는 해남의 산골인 금쇄동에도 은거지를 개척하여 보길도와 오가며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김으로써 금쇄동과 부용동은 윤선도 시가 문학의 2대 산실이 되었다. 관직 생활보다 은거와 유배생활 기간이 더 많았던 윤선도는 그래서 더욱 은거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도 모른다.

■ **어부사시사** : 윤선도가 보길도를 배경으로 지은 40수의 단가로 <고산유고>에 실려 전해진다. 봄·여름·가을·겨울 각 10수로 되어있고 작품마다 출병에서 귀선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8). 시대를 담는 그릇. 서울: 이상건축.
- ♣ 신영훈(1998). 우리 문화 우리 역사답사기1. 서울: 대한교과서.
- ♣ 정재훈(1990). 보길도 부용동 원림. 서울: 열화당.
- ♣ 정재훈(1996). 문화의 산길 들길. 서울: 화산문화.
- ♣ 황원갑(1995). 역사인물유적순례. 서울: 수문출판사.

판소리의 요람 신재효고택에 대하여

판소리의 사설을 집대성하여 민족문학으로 승화시키고 30여 편의 가사와 시조를 지은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은 1979년에 복원되었다. 중요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집은 예전의 풍류와 멋은 사라지고 얽은 돌담 안에는 판소리의 요람이었던 사랑채 한 채만 남아 있지만 신재효가 1850년 지어 말년까지 집안에 노래청을 두고 명창들을 길러내고 판소리 여섯 마당의 가사를 정리하여 이론을 세운 곳이다.

눈여겨 보기

■ **동리가비** : 고택 담장 밑에 있는 동리가비에는 그의 자서가인 <동리가>가 새겨있다. 비에는 “고창읍내 흥문거리/ 두충나무 무지개 안/ 시내 위에 정자 짓고/ 정자 곁에 포도시령/ 포도 곁에 연못이라-----”고 묘사되어 있어 예전의 풍류와 멋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느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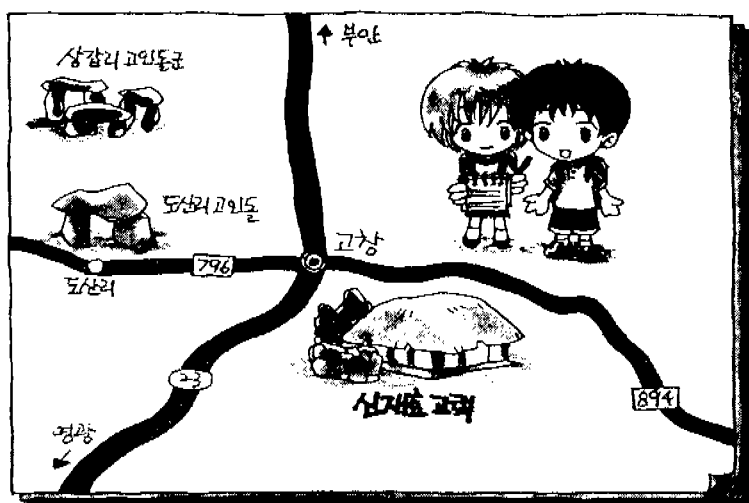
■ **민족의 정서와 멋** : 우리 민족의 정서와 멋과 풍류가 어우러진 민중음악이자 민족문학인 판소리에서 우리 민족의 해학과

애환, 서정성 느껴보기

주변 살펴보기

- **동리국악당** : 동리 신재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고창읍성 기슭에 세운 건물로 공연장, 기념관, 연습장이 있으며 동리대상을 시상하는 곳이다.
- **홀민비·추념비** : 동리 신재효의 훈훈한 인간애를 기리는 홀민비와 그의 유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추념비가 고창읍성 안에 있다.

찾아가는 길



 소재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미리 알아보기

■ **신재효** : 동리 신재효(1812~1884)는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하여 민족문학으로 승화시킨 분으로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동리 신재효는 판소리 열두마당 중 여섯마당인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의 사설을 개작·정리하였으며 30여편의 가사와 시조를 창작한 문학인이다. 중인 출신의 동리 신재효는 넉넉한 재산과 귀명창으로 소리꾼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여 그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고 뒷날 국창으로 이름을 떨친 이남치, 박만갑, 김창록 등도 그를 거쳐가는 등 민중의 예술을 민족문학으로 승화시킨 동리 신재효는 72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 **판소리** : 판소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판소리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소리는 노래로 불려지면서도 유사한 내용의 판소리계 소설들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판소리와 소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지만 판소리는 부채를 든 한 사람의 소리꾼(창자)이 한 사람의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창(소리·노래),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극적인 음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판소리라는 명칭은 1940년에 나온 <조선창극사>에 처음으로 나타나 19세기 말까지는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판소리 유파** : 판소리 전승지역은 전라도·충청도 서부와 경기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이어서 지역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라 유파가 형성되었다. 전라도 동북지역(구례·순창 등)의 소리제를 동편제라 하고, 전라도 서남지역(광주·나주·

보성 등)의 소리제를 서편제라 하며, 경기도·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한다.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소박하며 깊은 맛이 있으며 순조 때의 명창 송홍록을 위시하여 송광록, 박만순, 송만갑, 유성준으로 전해지는 소리제를 주축으로 한다. 서편제는 부드럽고 기교가 뛰어나 여성적이며 철종 때의 명창 박유전의 소리제에서 이날치, 김채만으로 이어지는 소리제를 주축으로 한다.

■ **판소리 열두마당** : 조선시대 평민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숙종 무렵에 발생한 판소리에서 마당이란 말은 판소리의 한 판을 뜻한다. 판소리의 열두마당은 명칭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장끼타령’ ‘변강쇠타령’ ‘무속이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전’ ‘가신선타령’ ‘웅고집타령’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는 다섯 마당(춘향가·심청가·홍보가·수궁가·적벽가)에 불과하다.

■ **판소리 장단** :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에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단모리, 엇중모리 등이 있다. 진양조는 가장 느리고 완만한 박자로 비통하고 하염없는 대목에 주로 쓰인다. 중모리는 판소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으로 의연하고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중모리보다 빠른 장단으로 화려한 정경과 명랑한 심경을 표현한다. 자진모리는 상황을 길게 나열하는 경우나 긴박감을 나타내는 대목에서 주로 쓰이며 휘모리는 판소리 장단 중 가장 빠른 장단으로 흥분과 긴박감을 나타내는 대목에 가장 많이 쓰인다. 엇모리는 신비한 인물의 거동이나 신비한 장면에 쓰인다.

■ **판소리 용어** : 붙임새 - 음악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음악적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하여 쓰는 기교로 가락을 늦추었다 당기었

다 하여 얼핏 들으면 박자를 불규칙하게 부르는 것 같이 함으로써 묘미를 가미하는 창법이다. **추임새** - 판소리를 할 때 고수 또는 청중이 창자(소리꾼)의 흥을 돋우어 주기 위한 감탄사로 소리의 강약과 휴지부를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 **귀명창** - 판소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서 깊이 감상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아니리** - 판소리 한 대목의 소리에서 다른 소리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 가는 것으로 사건의 변화, 시간의 경과 주인공의 심리묘사 등을 전달하고 소리꾼에게는 휴식시간을 주는 기능도 한다. **발림** -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고도의 축약성이 요구된다. **더늠** - 판소리의 유파에 따라 계승되어 오는 특징적인 대목이나 음악적 스타일을 일컫는다. 이날치의 ‘적벽가’ 중 새타령, 임방울의 ‘춘향가’ 중 쑥대머리 등이 유명한 더늠이다. **바디** - 판소리 한 판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말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성경린(1994). 국악감상. 서울: 삼호출판사.
- ♣ 이규섭(1994). 판소리 답사기행. 서울: 민예원.
- ♣ 최동현(1991). 판소리란 무엇인가. 서울: 에디터.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4). 답사여행의 길잡이 1. 서울: 돌베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호석생가터에 대하여

유년시절 이호석이 살았던 이호석생가터는 지금은 남의 집이 되어 가옥구조도 바뀌고 음식점까지 겸하고 있지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메밀꽃밭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인 정서를 읊어 놓은 그의 작품 ‘메밀꽃 필 무렵’을 상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소금을 뿌린 듯이 흐드러진 메밀꽃을 보기는 힘들지만 주인이 내어놓는 방문록을 마당 한가운데 있는 엄나무 아래에서 읽어보고 마지막 다음 장에 한껏부린 마음의 사치로 느낌을 적다보면 어느새 마음 속에 다가와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눈여겨 보기

- **메밀꽃밭** : 이호석생가터 앞에 펼쳐진 메밀꽃밭이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아직도 시상을 떠오르게 한다.
- **봉평의 산과 들** : 고향의 산천을 무대로 향토적 정서가 짙게 표현된 그의 작품세계를 느껴보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서술된 봉평의 산과 내 그리고 오솔길을 볼 수 있어야 작품의 감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

느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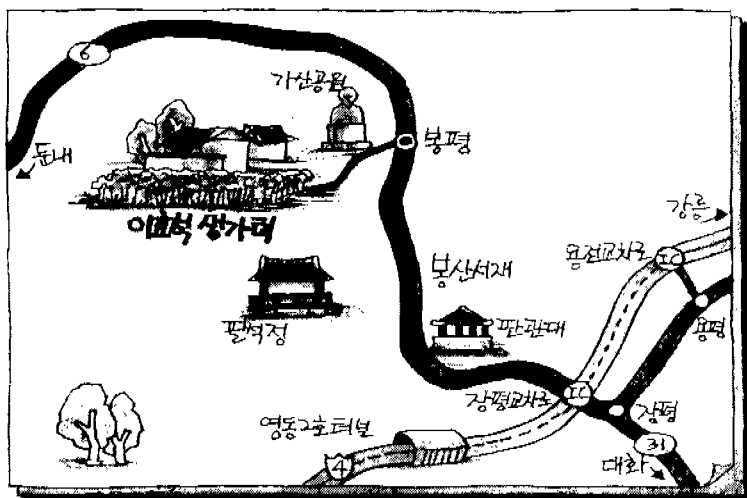
- **소설 속의 장터 찾아보기** : 옛날과 같은 모습이 많이 퇴색되

어 소설 속에서 묘사된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강원도 산골장터의 분위기를 아직도 느껴볼 수 있는 5일장으로 서는 봉평, 대화장을 찾아 우리의 삶과 정서의 원형 느껴보기

주변 살펴보기

- **이효석 흉상** : 이효석 생가터 입구 봉평중학교 맞은편 가산공원 내에 기념석과 함께 있다.
- **이효석 문학의 터** : 이효석 흉상이 있는 가산공원을 지나 남안교를 건너면 1991년 남안동을 문화마을로 지정하면서 세운 기념비와 물레방앗간이 있다.

찾아가는 길



 소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미리 알아보기

■ **이효석** : 가산 이효석(1907~1942)은 1930년대의 우리나라 문단에서 가장 참신한 언어감각과 기교를 겸비한 작가로 손꼽히지만 초기의 그의 문학은 정치적 성향이 짙었다. 그러나 1931년 결혼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부터 ‘메밀꽃 필 무렵’ ‘돼지’ ‘산’ 등과 같은 작품 속에서 그의 순수문학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 1938년 이후에는 ‘장미 병들다’ ‘화분’ 등과 같은 허무주의적인 요소가 짙은 작품이 발표되고 1940년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고는 실의에 빠져 만주 등지를 돌아다니다 끝내 36세로 이 세상을 하직한다.

■ **메밀** : 9월을 전후해서 흰색 또는 연홍색의 꽃잎이 다섯 개인 작은 꽃이 피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줄기가 약하고 바람에 약하다. 꽃이 지면 작은 흑갈색 열매가 맺는데 이것을 가루내어 국수를 만들거나 묵을 쑤어 먹는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

- ♣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이형권(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3. 서울: 돌베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라리의 고향 정선아우라지에 대하여

정선지방 사람들의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삶의 정서가 담겨있는 정선 아라리의 고향 아우라지는 두 갈래 물이 한 데 모여 어우러지는 나루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북쪽의 구절리에서 흘러오는 구절천과 남동쪽의 임계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 조양강과 오대천을 만들며 남한강의 상류를 이룬다. 지금은 도로가 발달하여 나루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나룻배는 여량과 구절리를 이어주고 있다. 구절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의 언덕에는 아우라지 처녀상이 있고 동상 뒤쪽의 아우라지비에는 정선 아라리의 가사가 새겨져 있다. 잔잔한 흐름속에 소박하면서도 서글픔을 지니고 있는 정선 아라리와 겉보기에는 얕고 잔잔하지만 나룻배를 타고 물 가운데로 나가면 맑고 깊숙한 아우라지강의 모습은 그래서 닮았는지도 모른다.

눈여겨 보기

- **아우라지처녀상** : 아우라지강 언덕에 뱅기머리 드리우고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처녀상으로 정선아리랑을 기념하여 1987년에 아리랑비와 함께 세워졌다.
- **아우라지비** : 아우라지처녀상 뒤쪽에 있는 아우라지비에는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리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님 그리워

나는 못살겠네」라는 노랫말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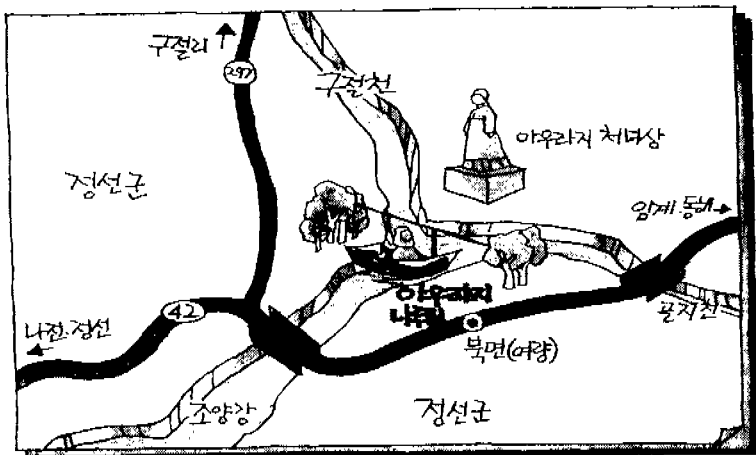
느껴보기

- **음악언어 아라리** : 전해 내려오는 가락에 자신의 심사를 노랫말로 창작해 내는 정선지방의 독특한 삶의 정서가 담겨 있는 정선아라리를 통해 우리 고유의 민요적 음악언어 느껴보기

주변 살펴보기

- **거칠현동** : 정선군 남면에 있는 거칠현동은 고려의 일곱 충신들이 조선 왕조 때 불사이군의 절개를 고수하며 은거한 곳으로 정선 아라리의 발상지이다. 일곱 충신들이 자신들의 비통함을 한시로 지어 읊은 것을 후에 사람들이 풀이하여 부른 것이 정선아라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찾아가는 길



☞ 소재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미리 알아보기

■ **정선아라리** : 강원도 정선지방 민요의 하나로 정선에서는 아라리라고 한다. 정선 아라리의 노래말은 700~800여수나 되는데 정선 아라리의 기원은 조선 창업을 반대한 고려유신 중 정선에서 은신생활을 하던 7명이 고려왕조에 대한 홀모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로 읊은 것을 후에 세인들이 풀이하여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채집된 가사 중에는 고려유신의 사연이 담긴 가사는 많지 않고 산수, 이별, 애정, 인생무상 등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은 잔잔한 흐름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서글픔을 지니고 있다. 정선 아라리는 강원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정선아라리 설화** : 아우라지 처녀상과 아우라지비에 적혀있는 노랫말에 얹힌 설화는 아우라지 나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 여량리와 유천리에 사는 처녀와 총각이 싸리골에 동백을 따러간다는 핑계로 서로 사랑을 하였는데 여름철에 장마로 물이 불어나 나룻배가 떠내려가 못건너게 되자 여량리 처녀가 이를 원망하며 부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신경림(1993). 민요기행 1. 서울: 한길사.
- ♣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3. 서울: 돌베개.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리의 세계문화유산들 찾아서

답사하기에 앞서

종모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수원화성

창덕궁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WHC)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산 550여 점을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 성곽, 탑 등과 같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이집트의 누비아 유적지, 피라미드, 그리이스의 아크로폴리스, 인더스 문명의 발생지인 모헨조다로, 마야문명 유적지인 마추픽추, 중국의 만리장성과 자금성, 인도의 아잔타 석굴,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선사시대 유적지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 400여 점이 지정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유산의 확실성과 그 가치의 탁월성 및 해당국가의 관리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세계유산은 매년 1회씩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등재 신청 및 서류심사, 국제기념물 유적협회의 현지조사, 1·2차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확정되

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영구보존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과 유네스코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 인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관심도 제고시켜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우리 나라는 1988년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7년 10월에 세계유산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1995년 12월 1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관전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21차 총회에서 수원화성과 창덕궁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종묘에 대하여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사후에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는 의례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 제례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 600년 전에 세워진 건축이지만 지금도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한 차례씩 제례(종묘대제)가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극도로 절제된 건축미와 엄숙한 제례의식으로 세월을 뛰어넘은 생명력을 지닌 영원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종묘는 이러한 문화유산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세계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종묘는 조선시대 건축 가운데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것 중의 하나로 한국 건축의 일반적 특성인 비대칭적 대칭 배치를 따르고 있다. 정전의 동·서월랑이나 신로 등에 응용된 이러한 배치 기법은 한없이 고요한 종묘 공간에 동적인 기운이 감돌게 한다. 단청까지 삼가 할만큼 단순하고 절제된 건축구성은 일상적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한데 어울리는 영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조선 왕조의 개국과 함께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해 펼쳤던 성리학적 이념과 질서를 종묘 건축에 투영시키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종묘의 ‘종(宗)’은 마루, 근본, 으뜸을 뜻하고 ‘묘(廟)’는 신주를 모신 사당을 뜻한다. 유교사회에서 종묘와 사직의 존재는 정치이념상 국가기틀의 완성과 왕조의 뿌리를 상징한다.

■ **종묘의 길과 선** : 종묘는 정전과 영녕전이라는 두 개의 중심 영역을 갖는다. 나머지 재궁이나 향대청 등은 두 신전에 제사 지내기 위한 부속영역들이다. 종묘에는 의미있는 길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인간은 다닐 수 없고 혼령만이 드나드는 길인 신도(神道)이고 또 하나는 제사 담당자인 임금과 세자가 이동하는 의례의 길인 어도(御道)이다. 두 길은 모두 전들을 깔아 일반 통행로와 쉽게 구별되며 어도와 신도는 세 개의 길을 합쳐놓은 것 같은데 신도인 가운데 부분은 어도인 양옆 부분 보다 약간 높게 조성되어 봉축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다. 종묘의 정문을 들어온 어도는 향대청과 망요루 앞의 연못을 지나 우측으로 꺾어져 재궁 속으로 사라진다. 다시 어도는 재궁의 서쪽문에서 시작하여 정전의 동문을 향한다. 제주들은 동문을 통해 들어가 제례를 지내고 다시 동문을 통해 빠져 나온다. 어도는 정전 남쪽 담장을 끼고 꺾어져 영녕전 영역으로 향하다 다시 우측으로 꺾여 영녕전 동문을 향하게 된다. 정전에서와 유사한 절차의 제례를 지낸 임금은 재궁으로 돌아가 머뭇머뭇 제례를 마친다. 어도는 바닥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빨리 걸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종묘의 길들은 그 자체가 건축적 질서이며 의례이다.

■ **정전** : 국보 제227호인 정전은 태조 때 태실 7칸으로 창건되었으나 19칸이 되었다. 정전 내부는 서쪽을 높은 위계로 치는 '서상의 원리'에 따라 태조를 가장 서쪽 칸에 모시며 후세의 왕일수록 동쪽으로 모신다. 정전 지붕에는 요괴들과 잡귀들이 건물에 접근 못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잡상이 있다.

■ **영녕전** : 보물 제821호인 영녕전은 정전과 달리 가장 오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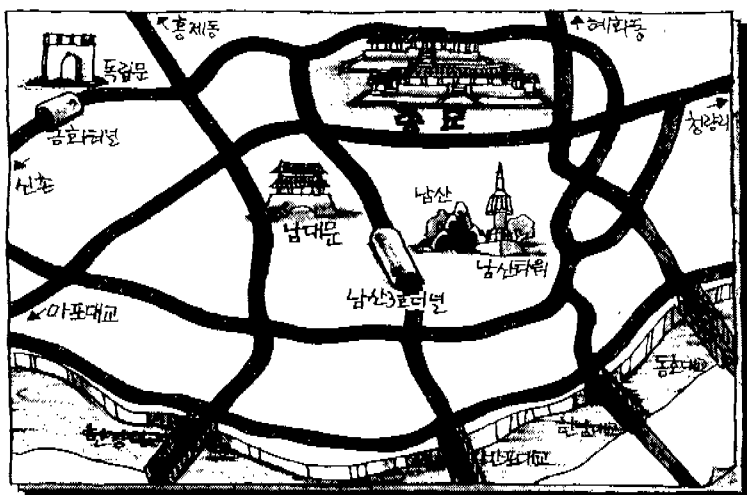
4신위(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중앙의 4칸에 모시고 양옆 협실에 후대의 신위를 모셨다. 서협실에 선대임금을, 동협실에 후대 임금을 모셨다.

■ **판위** : 정전과 영녕전 동문 앞에 있는 판위는 임금이 제례의식을 위해 서있던 정방형의 평평한 단으로 어도와 달리 짙은 회색이다.

■ **망묘루** : 망묘루는 제향 때 왕이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 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으로 왕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 **재궁** : 정전 동쪽에 담장을 두른 독립된 곳으로 제례가 시작되기 전 임금과 세자가 머무르면서 준비를 하는 곳으로 제주들이 재궁의 서문을 나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제례가 시작된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미리 알아보기

■ **종묘제례악**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원곡은 세종대왕의 창작품이었다. 고려에서 전승된 향악에 새로운 음악형식을 부여하여 창작한 조정의 문덕과 무덕을 기리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조 때 이르러 종묘제례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곡과정을 거친 뒤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악(樂), 가(歌), 무(舞)를 갖추어 연주하는 음악이다. 제례악으로서의 장엄미와 연륜의미를 대표하는 종묘제례악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국립국악원의 연주회, 연주 음반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 **종묘제례** :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제례는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로 즐겁게 해드린 후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례는 재계를 마친 320여 명의 제관들이 면복과 면류관 차림에 청옥으로 만든 규를 잡고 동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정하여 네 번 절을 올리는 참신으로 시작한다. 참신 후에는 향로에 향불을 세 번 지피고 술을 따라 땅에 세 번 붓고 제수를 올리는 영신과 전폐, 진찬의 예를 진행한다. 이 때 헌가에서는 보태평지악을 무원들은 보태평지무 중 영신회문과 전폐회문을 연행한다. 진찬은 일무(舞)없이 음악만 연주한다. 등가가 연주하는 보태평지악에 맞추어 헌관이 신위에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어 고하는 절차인 초헌례 후에는 축문을 읽지 않고 정대업지악과 정대업지무에 맞추어 헌작만 하는 아헌과 종헌이 진행된다. 종헌 후 음복을 마치면 제수를 거두는 철변두절차가 일무 없이 등가의 웅안지악에 맞춰 진행되고 헌관이 하 모든 참례자가 4배를 올리고 나면 송신악 연주에 맞춰 신

을 전송한다. 초현관이 망료위에 나아가 축문과 폐를 태우는
것으로 모든 제례가 끝난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8). 시대를 담는 그릇. 서울: 이상건축.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삼성문화재단(199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서울: 학고재.
- ♣ 연암교육문화연구회(1994). 교육여행. 서울: 연암출판사.
- ♣ 이태원(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 청림출판.

석굴암불국사에 대하여

통일신라 문화의 황금기인 신라 경덕왕 때 건립된 석굴암과 불국사는 예술과 과학의 완벽한 통합체로 화엄사상을 완벽한 조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경주 토함산 깊은 곳에 동해를 향해 앉아 있는 석굴암은 완벽하고 빼어난 조각과 독창적인 건축으로 전세계에 이름이 높다. 고도로 발달된 기하학적 비례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변형되고 화엄사상의 법계의 원리와 상통하는 수리적 비례 안에서의 조화율이 적용된 석굴에는 대단한 양감으로 사실적이면서 환상적인 생생한 인물과 보살들이 조각되어 있고 그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 반구형의 공간 자체가 최고의 예술품이며 그 공간에 앉아 있는 본존불의 신비한 미소는 감동의 실체 그 자체이다. 그 당시 인도나 중국에서도 성도상을 회화나 조각으로 표현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성도상이었지만 신라인들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를 3차원적인 입체조각으로 그리고 시간성이 가미된 4차원적 공간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통일신라 시대의 기념비적 예술품인 불국사는 여러 모습으로 분화된 불신을 여러 불국토에 나누어 배치하면서 자력신앙과 석가정토를 강조하고 있다. 신라시대에 ‘대화엄불국사’라고 불렸던 불국사는 심오한 불교사상인 화엄사상을 가시적인 조형예술인 사원건축으로 표현한 사찰이다. 김대성에 의해 건립된 석굴암과 불국사는 예술과 기술, 건축과 과학, 건축과 종교의 일체화가 성공을 이룬 대작이다.

석굴암

석굴암은 주실과 전실로 구분된다. 주실 중앙에는 본존불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벽면에 39체(현존하는 것은 37체)의 조각상이 좌우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 **본존불** : 석굴암의 동근 법당 한가운데 동쪽 바다를 향해 앉아있는 석가모니대불은 연화무늬를 새긴 동근 대좌 위에 오른쪽 발을 바깥쪽으로 하여 결가부좌하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땅을 짚어 부처의 진리를 증명하는 항마촉지인을 취한 오른손이 반듯하게 하단전에 놓인 왼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어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친 승리의 순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성도상이라고도 불리운다.

■ **십일면관음보살상** : 본존불 바로 뒤에 서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본존불 다음 가는 존제로 중생의 뉘뉘이에 따라 때로는 성난 모습으로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의 자비심을 상징한다.

■ **궁륭천정** : 108개의 돌로 구성된 궁륭천정은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하고 있다. 감실 위쪽부터 5단의 천정석은 위로 갈수록 좁게 쌓아 둥글게 만들고 3단부터는 방사선 형태로 중간에 30개의 돌을 끼워 기하학적으로 구성하였다. 천장 맨 꼭대기에는 연화무늬의 돌을 덮어 석굴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본존불의 천개로 삼았다.

불국사

석굴암과 마찬가지로 25년여의 긴 세월에 걸쳐 완성된 불국사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 백운교, 다보탑과 석가탑 등이 있는 구역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등이 있는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전면에서 바라볼 때 불국사는 장대하고 독특한 석조구조 위에 건축되어 석가정토의 대웅전이 아미타정토의 극락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 **청운교와 백운교** : 청운교와 백운교는 독특한 형태의 계단으로 지상에서 불국토로 인도해 주는 다리를 상징한다. 계단 중앙에는 분리대가 있어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구분하고 계단 아래에는 아치형의 터널을 만들어 물이 흐르는 다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상과 천상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중생은 석가정토로 인도된다.

■ **다보탑** :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은 정사각형의 기단 위에 여러 형태로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를 겹겹이 쌓아올려 조화롭게 반복시킴으로써 불법의 무량한 공덕과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자비심을 상징했다. 원래 기단을 덮은 갑석의 네 귀에 네 마리의 사자를 배치했으나 일제 때 일본으로 반출되고 현재는 한 마리만 남아있다.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은 단순하고 소박한 좌경루 뒤에 위치하고 있어 균형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석가탑** : 국보 제21호인 석가탑은 무영탑으로도 불리운다. 통일신라 초기의 둔중한 석탑양식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간결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신라식 석탑의 전형을 확립했다. 기단 부나 탑신부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으며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빈 하늘을 배

경으로 극히 안정된 느낌을 준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 미리 알아보기

■ **석가정토** : ‘법화경’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한 영취산을 그가 상주하는 정토로 삼는다. 석가모니가 사바세계에서 정각하여 얻은 절대진리의 세계를 말한다. 석가정토는 현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석가여래가 인간의 몸으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신 것을 가리킨다. 불국사는 석가정토 구역이 아미타정토 구역보다 훨씬 넓고 높은 것을 볼 때 석가정토 구역을 강조한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 **아미타정토** :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국력세계가 바로 아미타정도로 불국사가 건립된 8세기 중엽
은 아미타 신앙이 융성하던 시기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8). 시대를 담는 그릇. 서울: 이상건축.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삼성문화재단(199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서울: 학교재.
- ♣ 신영훈(1994). 절로 가는 마음. 서울: 책 만드는 집.
- ♣ 연암교육문화연구회(1994). 교육여행. 서울: 연암출판사.
- ♣ 유홍준(199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해인사장경판전에 대하여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판 8만 여권 (팔만대장경)을 보존하는 보고로 해인사의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장경판전은 같은 양식과 규모의 두 건물을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한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남쪽의 건물을 수다라장, 북쪽의 건물을 범보전이라 하며 동,서쪽에도 작은 규모의 동, 서판전이 있다. 조선 초기의 전통적인 목조건축 양식을 보이는 장경판전은 건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뛰어난 방습, 통풍, 실내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과학적인 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장경판전의 이러한 특성은 대장경판이 오늘 날까지 보존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 받는다. 장경판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판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해인사 경내의 맨 위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범보사찰’ 해인사를 상징한다.

눈여겨 보기

■ **장경판전** :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판을 봉안한 곳이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로 입지조건과 건물이 과학적 기술적 극치를 이룬다. 가야산 중턱 655m되는 고도에 서남향으로 건물을 앉힘으로써 남쪽 아래에서 동남풍으로 불어 올라오는 습기가 많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장경판전을 타

고돌아 건물 옆으로 비스듬히 스쳐 지나가게 하였다. 또한 장경판전 건물의 좌향은 일조와도 관련이 있어 건물 주변 어느 곳에도 영구 음영이 생기지 않는다. 이밖에도 장경판전 내부에는 흙바닥으로 그 속에 숯과 찻가루와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음으로써 실내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가능 하도록 하였다. 북쪽의 법보전과 남쪽의 수다라장 모두 각각 60칸인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로 국간 대장경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 대장경판을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안할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전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상은 법보전의 본존불로서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 **판전의 벽면** : 법보전과 수다라장의 각 벽면에는 위아래로 여러 개의 창이 나있는데 앞면의 창은 위의 것이 작고 아래 것이 크며, 뒷면의 창은 아래 것이 작고 위의 것이 크다. 이유는 건물 뒤쪽의 산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큰 창을 통해 흘러 들어오게 하는 한편 앞쪽에는 큰 창을 아래에 두어 습한 공기를 차단함과 동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실내에 고루 퍼진 후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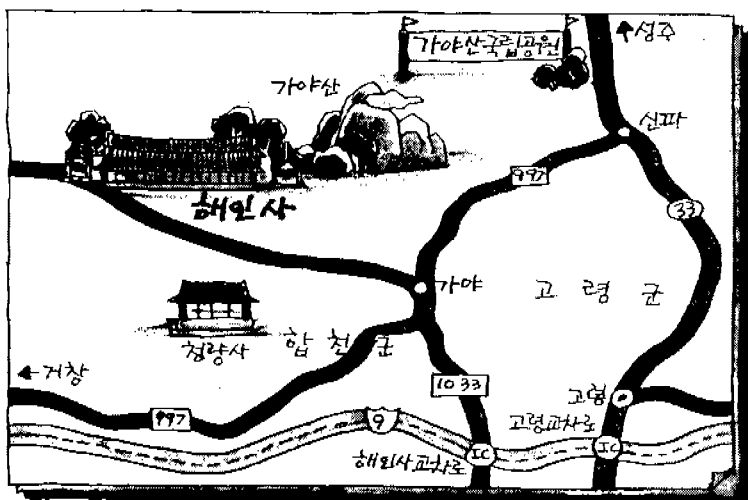
해인사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된 해인사는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고려 팔만대장경판을 600년 가까이 보존하고 있는 법보종찰이다. 해인사의 공간은 진입공간, 수도생활공간, 예불공간, 법보공간으로 나뉘어진다.

- **대적광전** : 해인사의 큰 법당으로 창건 당시에는 비로나불을 모시고 비로전이라는 편액을 걸고 있었으나 1490년 중건 때 대적광전으로 바뀌었다.

■ **구광루** : 일주문, 봉황루, 해탈문을 거쳐 다다르게 되는 누각 건물로 해인사 중건시 명칭은 원음루였다.

찾아가는 길 



 소재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미리 알아보기

■ **팔만대장경** : 대몽항전을 위한 결사의 의지로 고종 23년(1236) 10월부터 38년(1251) 9월까지 16년간에 걸쳐 네 번째 고려대장경 해인장경판을 간행하였다. 경판은 부패와 충해를 방지하는 견고한 자질의 목재를 오랫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이것을 다시 소금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린 다음 그 위에 구양순채로 동일하게 새겼는데 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각목으로 끝

을 마무리하고 옷칠을 한 다음 네 귀퉁이를 동판으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렇게 제작된 해인사판은 현재 8만 1258판 1511부 6802권으로 해인사 장경판전에 봉안되어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고 은(1992). 절을 찾아서. 서울: 책세상.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삼성문화재단(199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서울: 학고재.
- ♣ 신영훈(1994). 절로 가는 마음. 서울: 책 만드는 집.
- ♣ 연암교육문화연구회(1994). 교육여행. 서울: 연암출판사.
- ♣ 이태원(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 청림출판.
- ♣ 이형권(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수원화성에 대하여

조선 후기 미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배후도시로 탄생한 수원 화성은 18세기가 요구하는 진보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새로운 개념의 성곽을 창조해 냈다. 도시 기능에 합당하면서도 방어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근대지향적 건축기술의 실험장이었던 수원 화성은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힘입은 성과로 그 배경에는 백성의 주거생활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실학의 위민사상이 깔려있다. 성곽건축을 완성시킨 수원 화성의 성벽은 지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4-6m높이로 쌓고 그 위에 1.2m 높이의 여장을 쌓았다. 아래는 큰 돌로 위는 작은 돌로 쌓여 위로 갈수록 벽면이 들어가게 했다. 정조가 꿈꾸던 상업도시 화성은 성곽이 완공된 지 불과 4년 후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 화성은 수원으로 불리게 되었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던 이 도시는 다시 지방의 소도시로 위축되었다가 1960년대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지금 수원은 성곽도시로서 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한 채 이상적인 미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눈여겨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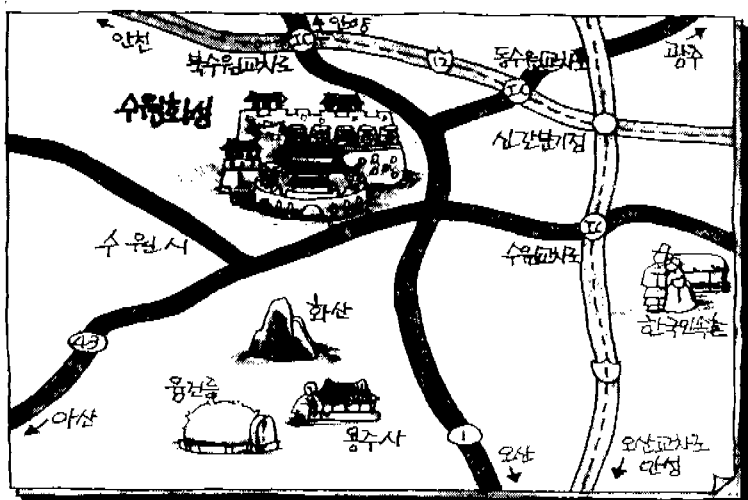
■ **팔달문** : 조선시대 건축의 미적 전통을 계승한 대표적 건축물

로 화성의 남문이다. 반듯하게 다듬은 커다란 돌을 가지런히 쌓아올린 웅장한 축대 위에 날아갈 듯한 2층 지붕의 누각을 올려서 만들었다. 팔달문의 외관은 도성 서울의 동대문이나 남대문을 닮았다. 조선시대에 도성의 정문이나 궁궐의 문처럼 특별히 중요한 건물에만 응용했던 우진각형식의 지붕을 얹은 것을 볼 때 격식있게 꾸미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 **공심돈** :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축물로 벽돌 사용으로 극적인 효과를 본 곳이다. 서북공심돈은 화서문 옆에 한 쪽으로 돌출한 성벽위로 높은 망루를 세운 형상을 하고 있다. 벽 곳곳에 총구멍을 뚫어 적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단조로운 벽면에 변화를 주어 특별한 인상을 더한다. 동북공심돈은 더욱 인상적인데 원통형에 가까운 벽면 전체가 온통 벽돌로만 축조되어 있다.

■ **화홍문** : 화성의 여러 건축물 중 가장 돋보이는 건물로 북에서 남으로 성내를 관통하는 개천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은 일곱 개의 돌로 만든 반원형 수문 위에 서 있는 누각이다. 흐르는 물위에 돌을 쌓아 아름다운 다리를 놓고 그 위에 세 칸의 누각을 세운 광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 **방화수류정** : 화홍문 동쪽의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누각으로 이 누각에 올라서면 용연이라는 연못이 내려다 보인다. ‘ㄱ’자형으로 꺾어져 있는 방화수류정은 ㄱ자형 바닥에 맞춘 지붕의 모습 또한 독특하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벽면으로 붉은색을 칠한 목조기둥을 좌우에 세우고 그 사이에 벽돌을 채워 넣음으로써 건축구조의 새 장을 열었다. 특히 화홍문에서 올려다 보이는 한쪽 벽면은 벽돌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꾸며 색 다르다.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미리 알아보기

■ 수원화성의 역사적 배경과 건설과정 : 정조가 왕으로 등극한 18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서서히 변화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철저히 농업에만 의존하고 있던 경제구조에서 점차 상업의 비중이 커져갔으며 신분제도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왕권이 약해져 있어 왕권을 되찾는 것도 과제 중의 하나였다.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은 강력한 권위를 지닌 왕으로 서게 했다. 사도세자 무덤의 이장이 결정되면서 추진된 신도시 건설은 왕의 권력을 지원하는 하나의 배후도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신도시가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이름을 ‘화성’으로 고치고 화성을 둘러싸는 성곽의 건설을 명했다. 성곽건설의

책임은 정약용에게 돌아갔고 2년 반만에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와 산세를 살려가며 축조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 성곽이 탄생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김봉렬(1998). 시대를 담는 그릇. 서울: 이상건축.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삼성문화재단(199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서울: 학고재.
- ♣ 신영훈(1998). 수원의 화성. 서울: 조선일보사.

창덕궁에 대하여

‘동아시아 궁궐 건축 및 정원 디자인의 뛰어난 원형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식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아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은 조선왕조의 이궁(離宮)으로 태종 때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세조가 이곳으로 이어(移御)하면서 궁역을 확장했고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다가 광해군 때 중요 전각이 복구되면서 창덕궁은 정궁(正宮)이던 경복궁을 대신한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으로 조선말기까지 역사의 무대로 사용되었다. 창덕궁은 정궁인 경복궁과는 달리 지형에 따라 자유로운 건물 배치를 하여 독특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삼국시대 이래로 궁실의 조영에서 적용되는 지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시설하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적인 궁궐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궁이라는 점이 창덕궁의 큰 특징이다. 궁내의 건물은 조선 중기의 것에서부터 금세기에 지어진 것까지 다양한 시대적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존 최고의 궁궐대문인 돈화문과 신하들이 하례식이나 외국사신의 접견장소로 쓰이던 인정전, 국가의 정사를 논하던 선정전, 왕비가 머물던 중궁전인 대조전 등 수 많은 건물들이 대체로 본래의 격조를 잃지 않고 유지되었다. 또한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엔 우리 나라의 조원 기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예로서 300년이 넘는 거목과 연못, 정자 등 인공적 조원시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꾸미는 조선시대 원치의 가장 두드러진 성

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창덕궁은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또 조경문화의 측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눈여겨 보기 🔍

- **전각의 배치** : 창건 당시의 창덕궁은 경복궁의 동쪽인 향교동에 자리하여 동궐이라는 별칭이 붙었었다. 앞뒤에 낮은 언덕이 있고 좌우로 평지가 열린 모양으로 서쪽으로는 작은 개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청계천으로 모아지는 지세에 적절히 대응하여 각 전각의 기능에 맞춰 전각을 배치하였다.
- **돈화문** : 창덕궁의 정문으로 태종 12년(1412)에 창건되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광해군 원년(1608)에 재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궁궐 정문들이 정면 3칸인데 비해 정면 5칸, 측면 2칸, 우진각형식 지붕의 2층 건물로 가운데 3칸은 문짝이 달려있고 가장자리 두 칸은 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문짝 셋 중 가운데 문은 왕만이 드나드는 어문으로 좌우의 문보다 약간 더 크다.
- **회화나무** : 돈화문을 들어서면 왼편에 서너 그루 서있는 회화나무는 궁궐의 바깥문을 들어서면 바로 만나는 조정 가운데 세 그루를 심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가 삼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앉는 자리로 궁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받아 들여졌다.

외 전

- **인정문**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을 한 다포집으

로 인정전의 정문이다. 인정문도 문이 셋으로 되어 있어 가운데는 어문, 동쪽 문은 문관들이 서쪽 문은 무관들이 드나들었다.

- **인정전** : 정면 5칸, 측면 4칸의 2층 팔작지붕 다포집으로 창덕궁의 법전(法殿)이다. 겉보기에는 2층이지만 속은 한 층으로 되어 있어 넓고도 높은 공간을 만들어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왕이 앉는 용상을 놓아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백관하례를 받았었다.

내 전

- **선정전**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 다포집으로 창덕궁의 편전이다. 왕이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거나 잔치를 베풀기도 하는 공식 집무실로 명종 때에는 문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던 곳이다.
- **회정당** : 창덕궁 침전의 하나로 내전에 속하는 건물이었으나 중요한 결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20년에 재건되면서 한국 건축에 없던 현관이 생기는 등 아담하면서도 격조있는 원래 건물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다.
- **대조전** : 대조전은 왕비가 기거하면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집으로 태종 때 창건되었으나 1917년 화재 후 경복궁의 교태전을 헐어 재건하였다.

동 궁

- **낙선재** : 현종 13년(1847)에 건립한 것으로 본 건물에 접속된 석복헌과 수강재까지 3개의 건물을 낙선재라 총칭한다. 장락

문이라는 편액글씨는 홍선대원군의 글씨로 이문을 들어서면
안정감있는 집의 안마당이 나온다.

후 원

태종 때 조성되기 시작하여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이후 광해군 때 복구를 시작하여 정조 때 주합루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인공적 조원시설도 자연 속에 조화되도록 꾸미는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궁궐의 후원이 되었다. 후원은 부용지를 둘러싸고 주합루와 영화당이 있는 곳, 연경당과 기오헌 주변, 언덕 너머 존덕정과 관람정 일대, 후원 가장 깊은 곳인 옥류천 주변 등으로 나뉜다. 부용지와 주변 건물은 장대하고 화려하며, 연경당 주변은 민가풍의 주택을 둘러싸고 소박한 경관이 돋보이며 옥류천 주변은 가장 한적하고 아기자기하다.

■ **부용정** : 평면 구성이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어 지붕도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추녀 부분의 서까래 구성이 구성작품을 보는 것 같다. 부용정에서 연못 건너에 있는 주합루를 바라보는 풍광은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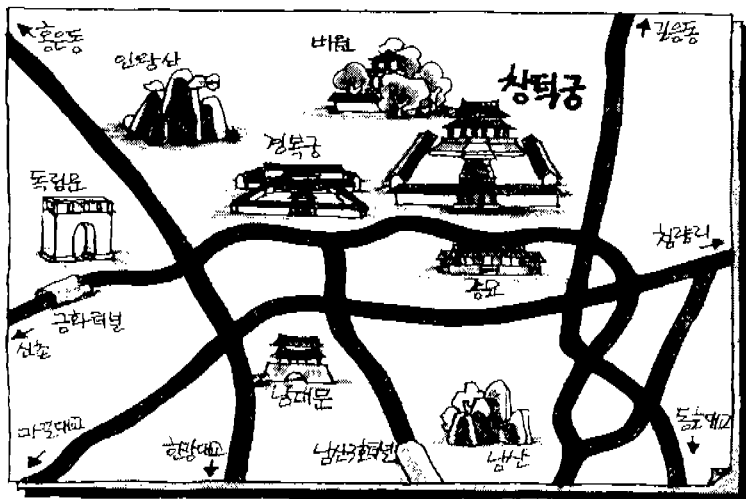
■ **주합루** : 주합루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있는 작은 문은 어수문으로 물고기와 물, 즉 신료와 왕을 뜻한다. 그래서인지 연못가에는 수면으로 높이 뛰어오른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 지금은 주합루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는 상층의 누각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하층의 이름은 규장각이었다.

■ **영화당** : 주합루 앞 연못 동변에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집으로 현관은 영조의 어필이다. 연회장소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의 최종시험을 치르는 곳으로도 자주 쓰였다.

■ **연경당** : 순조 때 지은 민가 풍의 건물로 내당의 구조는 거의 사랑채와 같다. 연경당 뒤뜰에 있는 관람정은 6개의 초석 위에 단면이 둥근 기둥을 세웠는데 그 중 4개는 연못 속에 서 있다.

■ **존덕정** : 조선시대 정자로는 보기 드문 6각형 건물로 이중구조로 된 처마와 천장의 구성이 독특하고 내부치장이 화려하다.

찾아가는 길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미리 알아보기

■ **내전** : 왕과 왕비의 공식활동과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궁궐의 중앙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능 면에서

도 궁궐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궁궐의 내전은 대전과 중궁전으로 구성된다.

■ **대전** : 왕의 기거공간을 가리킨다. 대전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는데 왕이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집은 '연거지소'라고 한다. 연거지소는 실질적으로 궁궐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다.

■ **편전** :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건물을 가리킨다. 편전은 궁궐에 따라 내전에 포함되기도 하고 외전에 포함되기도 한다.

■ **중궁전** : 왕비의 기거활동 공간으로 중전, 중궁이라고도 부르며 궁궐에서 중앙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 삼성문화재단(199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서울: 학고재.
- ♣ 연암교육문화연구회(1994). 교육여행. 서울: 연암출판사.
- ♣ 이강근(1993). 한국의 궁궐. 서울: 대원사.
- ♣ 이태원(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 청림출판.
- ♣ 홍순민(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청년사.

도움받은 책들

- 김병중(1999). 화첩기행. 서울: 호형출판.
- 김봉렬(1998). 시대를 담는 그릇. 서울: 이상건축.
- 김봉렬(1999). 삶과 삶의 공간. 서울: 이상건축.
- 두산편집실(1999). 이색박물관여행. 서울: 두산동아.
- 류경수(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 박 현(1995). 우리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백산서당.
- 박영규(199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도서출판 들녘.
- 뿌리깊은 나무(1992). 한국의 발견. 서울: 뿌리깊은 나무.
- 삼성문화재단(199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서울: 학교재.
- 송일봉(1996). 주제가 있는 여행. 서울: 성하출판사.
- 신영훈(1994). 절로 가는 마음. 서울: 책 만드는 집.
- 신영훈(1996). 사원건축. 서울: 대원사.
- 신영훈(1998). 수원의 화성. 서울: 조선일보사.
- 신영훈(1998). 우리 문화 우리 역사 답사기 1. 서울: 대한교과서.
- 연암교육문화연구회(1994). 교육여행. 서울: 연암출판사.
- 유홍준(199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강근(1993). 한국의 궁궐. 서울: 대원사.
- 이태원(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 청림출판.
- 이현희(1996). 이야기 인물한국사. 서울: 청아출판사.
- 이형권(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이형권(1995). 국토는 향기롭다. 서울: 미래사.
- 정 윤(1993). 어디가서 조용히 생각하다 돌아오고 싶다. 서울: 도서출판 장락.
- 정동오(1991). 한국의 정원. 서울: 민음사.

- 최성민(1996). 그곳에 다녀오면 공부할 맛이 난다 1-3. 서울: 대원사.
- 최완기(1995). 한국의 서원. 서울: 대원사.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1-6. 서울: 돌베개.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7). 답사여행의 길잡이 7-9. 서울: 돌베개.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0-11. 서울: 돌베개.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9). 답사여행의 길잡이 12. 서울: 돌베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순민(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청년사.
- 황원갑(1995). 역사인물유적순례. 서울: 수문출판사.